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의 미래

**The Future of Work in the Context of Population Ageing**

**in Asia and the Pacific**

**(ESCAP, 16 June 2023)**



**SOCIAL DEVELOPMENT  
DIVISION  
SDD WORKING PAPER 2023/01**



United Nations Publication  
Copyright © United Nations, 2023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Bangkok  
ST/ESCAP/3029

**Please cite this paper a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2023).  
The Future of Work in the Context of Population Ageing in Asia and the Pacific  
Available at: <https://www.unescap.org/kp/2023/future-work-context-population-ageing-asia-and-pacific>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Social Development Divisio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Email: [escap-sdd@un.org](mailto:escap-sdd@un.org)

**Disclaimer:**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ublicatio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and policies of the United Nations or other international agencies. The publication has been issued without formal editing. Mention of any firm or licensed process does not imply endorsement by the United Nations. Links contained in the present publication are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reader and are correct at the time of issue. The United Nations tak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tinued accuracy of that information or for the content of any external website. Re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for educational or other non-commercial purposes are authorized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provided that the source is fully acknowledged.

**감사의 말**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컨설턴트인 Elke Loichinger가 행한 데스크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초안을 작성했다. 본 보고서를 지도하고 검토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사회개발과(Social Development Division)의 Sabine Henning, 리뷰와 제안에 도움을 준 Young-Jae Lee, 보고서를 검토하고 편집한 Marco Roncarati, 그래프와 텍스트 형식을 작성하기 위해 도움을 준 Supatra Kaewchana와 Lawan Uppapakdee에게 감사드린다.

## 목차

개요.....	- 5 -
1. 서론.....	- 7 -
2.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노동의 미래.....	- 10 -
3. 노동 수요의 특성 및 동향.....	- 26 -
4. 새로운 트렌드와 발전,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	- 40 -
5. 결론 및 권고사항.....	- 48 -
부록.....	- 53 -
참고문헌.....	- 58 -

## 그림

그림 1. 아태지역의 지역별 합계 출산율, 1950-2020 년.....	- 11 -
그림 2. 아태지역의 지역별 출생 시 기대수명, 1950/55-2015/20 년.....	- 12 -
그림 3. 아태지역의 하위 지역별 국제 이주자 수, 1990-2019 년.....	- 14 -
그림 4. 아태지역의 하위 지역별 0-14, 15-64 및 65 세 이상 연령대 인구 비율, 1950-2010 년.....	- 16 -
그림 5. 아태지역의 하위 지역별 15-64 세 인구의 규모, 1950-2100 년.....	- 17 -
그림 6. 아태지역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별 인구, 2020 년(상단) 및 2060 년(하단)....	- 21 -
그림 7.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의 학력별 생산연령 인구(15-64 세), 1950-2060 년.....	- 23 -
그림 8. 2019 년 일부 국제노동기구(ILO) 하위 지역의 연령 및 성별 노동력 참여율(백분율).....	- 27 -
그림 9. 2020 년 및 2060 년 아태지역 국가의 50-64 세 인구의 교육 구성(초등 교육 비율 기준).....	- 55 -

**표**

표 1. 생산연령 인구(15-64 세) 비율과 절대 인구 수가 정점에 이르는 기간(각 기간 내 가장 빠른 연도부터 가장 늦은 연도까지 아태지역 국가의 순서)..... - 18 -

표 2. 아태지역 일부 국가의 교육 수준별 35-44 세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백분율), 2019/2020..... - 28 -

표 3. ESCAP 회원 및 준회원..... - 53 -

표 4. 2015/2020 년 합계 출산율(TFR), 남녀 기대수명, 아태지역 국가의 15-64 세 및 65 세 이상 인구 점유율(백분율), 2020 년, 2040 년 및 2060 년 ..... - 54 -

표 5.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노동력 참여율(60-64 세), 1990 년, 2000 년, 2019 년 ..... - 56 -

표 6. 아태지역 국가의 65 세 이상 인구 성별 노동력 참여율, 1990, 2000, 2019 년 .... - 57 -

## 약어

ADB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I	아시아 개발은행연구소(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fDB	아프리카 개발은행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EBRD	유럽부흥 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SCAP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GDP	국내 총 생산(gross domestic product)
ICT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SDG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TFR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개요

아태지역의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연령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노년인구의 비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는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노년인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근로자 부족 및 노인 인구의 눈에 띄는 증가와 함께 진행된다.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다양한 고령화 단계에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부터 낮은 출산율 및 높은 기대수명을 가진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노동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주 모색되는 해결책은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노동 이주를 늘리며, 노동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더 오래 일하려면 고령 친화적인 업무 환경이 필요하고, 기술 수요가 기술 공급과 일치하며, 노인의 건강이 좋은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태지역의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의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수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한 변화는 미래의 노동 공급 및 건강 상태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급속한 기술 발전은 일부 일자리가 기술로 대체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 및 기후 변화가 노동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노동의 미래에 마주할 기회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인구학적, 경제적, 기술적 및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방식으로 상호의존적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심지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회복력이 핵심이다. 인구의 다양한 그룹이 서로 다른 취약성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서로 다른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 노동 시장 및 지역 경제가 혼란을 겪으면서 기존의 많은 과제가 더욱 악화되고, 그동안 발전을 이루었던 부분들이 후퇴하였다. 동시에 팬데믹은 디지털화와 관련된 지속적인 개발을 가속화했으며,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의 기회도 부여했다.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인구통계학적 및 노동 시장 동향의 다양한 상황을 다루고, 이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녹색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 혁명 및 그 영향 등 새로운 동향 및 발전 상황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본 보고서는 추가적인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기술적 및 환경적 변화에 대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제안과 권고사항으로 마무리한다.

**주요 단어:** 아태지역, 인구 고령화, 노동의 미래, 노동 공급, 노동 수요

## 1. 서론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서로 다른 속도와 다른 수준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이 지역 인구의 미래 평균 연령대는 현재보다 더 고령화 될 것이다.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해 이 지역 인구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과 비교할 때, 아태지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ESCAP, 2017a).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 지역 노동력의 평균 연령은 2017년 39.3세에서 2030년 41.5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ILO, 2018a). 인구통계학적 상황은 지역과 국가마다 다르지만, 더 많은 국가가 인구통계학적 전환의 인구배당 후기 또는 포스트-인구배당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전체 규모는 감소할 것이다. 고령화 된 노동력은 연금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축이 감소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생산성 향상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각 분야의 정책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집단 간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의 참여는 노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의 관심과 노동 시장에 계속 머물러는 노인의 준비 및 관심에 따라 결정된다. 더 길고 생산적인 고용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건강이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특히 노년층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일부 일자리가 기술직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현재 4차 산업 혁명의 상황과 관련하여 적절하다.<sup>1</sup> 급속한 기술 발전은 고용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 특히 중간 기술 수준의 근로자에게 재교육 및 기술 향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환경 및 기후 변화는 노인을 포함하여 미래의 노동을 형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래의 노동에 대한 기회와 과제를 해결하려면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기술적 및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면에서 상호의존적이며, 코로나 19 팬데믹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국제 협약, 계획 및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측면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두드러지거는 2030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인구 고령화 및 직업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정책 영역을 다루고 있다. SDG 3은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목표는 SDG 8의 핵심 측면이며,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SDG 4) 및 성평등(SDG 5)과 같은 분야의 성과를 통해 생애 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최근 사무총장의

---

<sup>1</sup>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공학, 3D 프린팅, 인공지능, 머신러닝, 생명공학, 블록체인, 모바일 인터넷 및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많은 신기술에 의해 주도된다(AfDB, ADB, EBRD, IDB, 2018).

“우리의 공동 의제(Our Common Agenda)”에서 요구된 조치는 이러한 목표와 기타 모든 SDGs의 성취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UN, 2021).

인구 고령화와 노동의 미래에 관계된 중요한 많은 이슈가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동력과 고령화, 빈곤 퇴치, 소득, 사회보호(사회보장) 및 빈곤 예방, 건강 증진 및 평생 복지, 노인과 장애, 그리고 노화의 모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UN, 2002).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해당 지역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화, 노동의 미래, 사회보장의 주요 측면을 다루는 “유엔 건강한 나이든 10년(UN Decade of Healthy Ageing)” 선언의 중심이 되는 네 가지 행동 분야는 고령친화적 환경, 연령주의, 통합적 돌봄, 그리고 장기돌봄이다(WHO, 2020).

마지막으로 노동의 미래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는 투자 증대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사람의 역량, 노동 정책, 그리고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꼽았으며, 각 요소는 실행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한다(ILO, 2019e). 이러한 요소는 “노동의 미래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선언(ILO Centenary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Work)”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의 성격에 대한 중대한 글로벌 변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노동의 미래에 대한 인간 중심 접근 방식을 위한 로드맵을 보여준다(ILO, 2019c).

본 보고서에는 아태지역 국가의 미래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상세히 보여준다. 건강과 웰빙에 주요 역할을 하는 현재와 미래 노인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러한 동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현재와 미래의 생산 연령 인구의 규모와 상대적 비율에도 주목한다. 이 보고서는 해당 지역의 최신 통계 증거 및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구 고령화 및 노동 시장의 과제와 기회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모범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동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노동 공급 및 수요의 특성과 추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며, 이러한 추세를 인구 고령화 및 노동의 정책 영역(예: 사회적 보호와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과 연결한다. 새로운 트렌드와 발전을 다루는 챕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녹색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 혁명, 그리고 자연재해의 영향과 대응에 대한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추가적인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기술적 및 환경적 변화에 대비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 시장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마무리된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북아일랜드 및 미국을 제외한 ESCAP 회원국과 9개 준회원국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58개 국가 중 대다수는 내륙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국가로 간주되며, 몇몇 국가는 이 세 가지 범주 중 두 가지에 해당되기도 한다.<sup>2</sup>

개별 국가 또는 하위 지역에 대한 통계는 부분적으로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선택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표시된 하위 지역이 ESCAP에서 정의한 하위 지역과 동일하지 않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의한 국가 그룹을 나타내기도 한다.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예측 등의 진술은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분과(Population Division of UN DESA)에서 제공하는 최신 인구 예측에 기초한다(UN DESA, 2019b).

---

<sup>2</sup> See: <https://www.unescap.org/our-work/countries-special-situations>

## 2.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노동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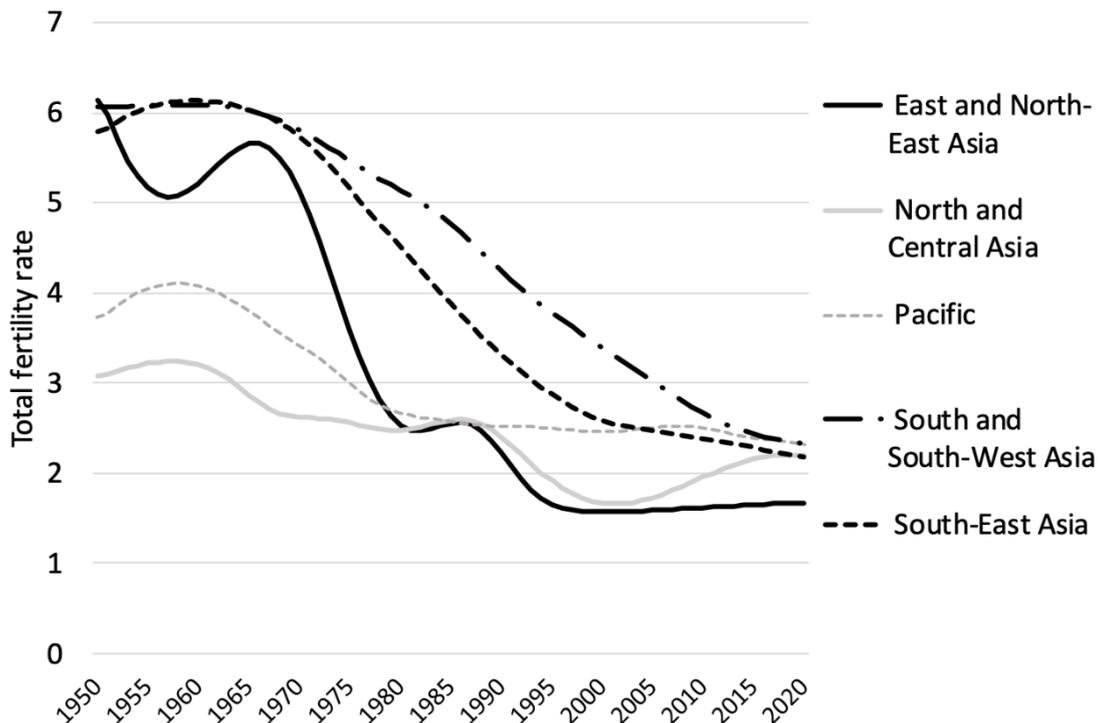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는 더 이상 고소득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다양한 개발 수준에 있는 국가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의 모델은 국가가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사망률에서 낮은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나타내며, 출산율 감소에 앞서 사망률 감소와 초기 높은 수준의 인구 증가를 보여준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노년인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예: 아프가니스탄, 키리바시, 라오스 및 파키스탄)부터 극도로 낮은 출산율과 높은 평균 수명(예: 호주, 일본, 뉴질랜드 및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구 고령화 단계를 보여준다.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와 함께 생산연령 인구의 수와 비율이 감소하여 노동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촉발된다.

성별 및 연령별 구성 외에도, 인구 고령화 맥락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특징은 개인의 인적 자본이며, 이는 교육 수준 및 건강 상태로 정의된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현상을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 또는 하위 지역 간의 분포와 (소득) 불평등과 같은 측면도 인구 구성의 중요한 차원이며 인구 고령화의 기회와 이슈에 영향을 미친다.

### A. 출산율 동향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1950년 이후 아태지역에서는 물론 수준과 속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하위지역에서 이 수치는 감소해 왔다. 1950년에는 하위지역 합계 출산율 범위가 3.0-6.0명이었지만 현재는 여성 1인당 1.6-2.4명으로 감소했다(그림 1). 1970년경까지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는 5.0을 넘어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속했지만, 세기가 바뀌기 훨씬 전에 2.0 이하로 떨어졌고 그 이후로 여성 1인당 자녀 수는 약 1.6명으로 정체되었다. 이러한 출산율의 빠른 감소는 이 지역이 현재 빠르게 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4).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인 2.1명 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이민을 통해 인구를 보충하지 않는 한 인구가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1. 아태지역의 지역별 합계 출산율, 195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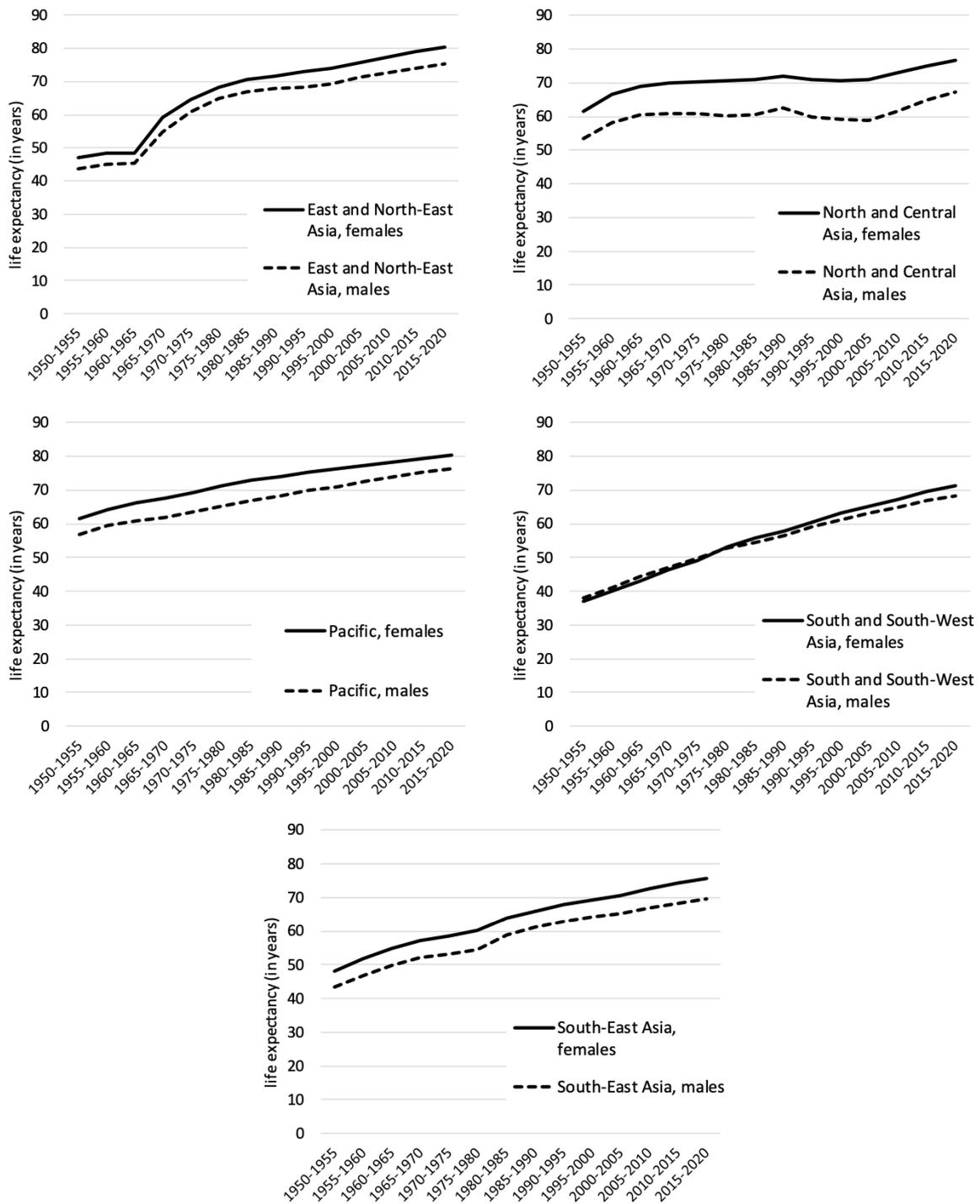


출처: UN DESA, 2019b.

## B. 사망률 추세

1950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하위지역에서 사망률은 감소했고 출생 시 기대수명은 늘어났다. 상대적인 증가폭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컸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두드러졌는데, 그곳에서 여성의 기대수명은 지난 70년 동안 37.0세에서 71.2세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그림 2). 수십 년 동안 기대수명의 증가가 없었고, 최근에서야 기대수명이 늘어난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궤적은 예외적이다. 이러한 관찰된 패턴과 과정을 총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려면 각 하위 지역을 구성하는 개별 국가의 사망률 추세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림 2. 아태지역의 지역별 출생 시 기대수명, 1950/55-2015/20



출처: UN DESA, 2019b.

자연 인구 증가를 의미하는 출생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는 5개 하위 지역 모두에서 양수이다(UN DESA, 2019b). 향후 20년 내에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자연 인구 증가는 마이너스로 바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또한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중국이 출생보다 더 많은 사망을 경험하기 시작할 기간이기도 하다. 자연 인구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국가별 이주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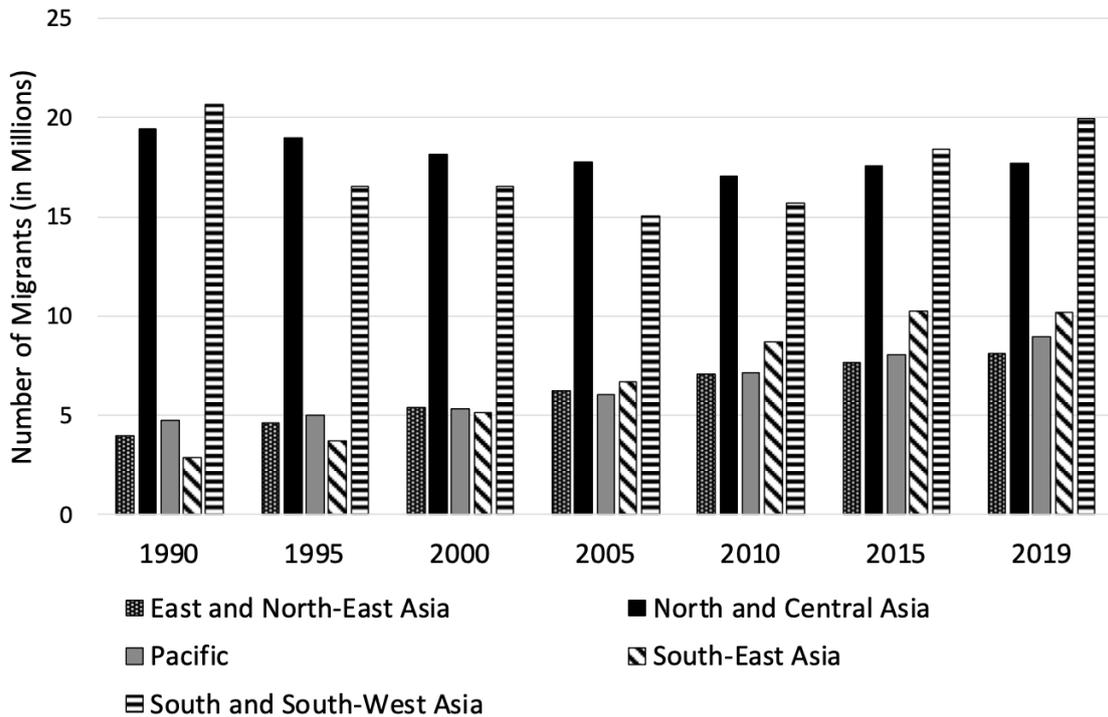
### C. 이주 동향

1950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각 하위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이주 수치는 마이너스였다. 이는 각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보다 각 지역을 떠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가 있다면 태평양 지역으로 이 기간 동안 이주 수치가 양수였고, 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는 2000년 경부터 이주한 사람이 더 많았다(UN DESA, 2019a).

이렇게 지역적으로 집계된 패턴에 숨겨진 의미는 각 하위 지역 내 국가 간의 실질적인 이주이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동일한 하위 지역 내 국가로 이주한 이민자의 비율은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의 약 4분의 1에서 태평양 출신 이민자의 약 56%까지 다양했다(ESCAP, 2020a). 이 지역의 국제 이민자 수는 1990년 5,170만 명에서 2019년 6,490만 명으로 증가했다(ESCAP, 2020a). 이들 6,490만 명 중 총 70%는 지역 내 국가 간에 이동한 지역 내 이민자였다. 각 하위 지역의 이주자 집단을 살펴보면, 국제 이주민의 가장 큰 비중은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였지만, 다른 세 하위 지역에서는 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는 다양한 기술 수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의 변화와 변화의 속도는 이주 기회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지역의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채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메가트렌드인 기후 변화는 향후 이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의 종류와 그 심각성은 지역의 국가들마다 크게 다르다(ABDI, OECD, ILO, 2021).

그림 3. 아태지역의 하위 지역별 국제 이주자 수, 1990-2019



출처: UN DESA, 2019b.

본 보고서는 지역 및 국가 수준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가 수준에서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 경제 및 환경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상황이 지방 수준에서 크게 다르며 여기서 내부 이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한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 일자리 찾기, 기후 변화 회피, 환경 파괴 또는 정치적 갈등 등이 이주 이유 중 일부이다. 젊은 성인들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차이와 함께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아태지역에서는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이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더 높다(UNDP, 2016). 변화하는 노동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국가 정책을 실행에 옮길 때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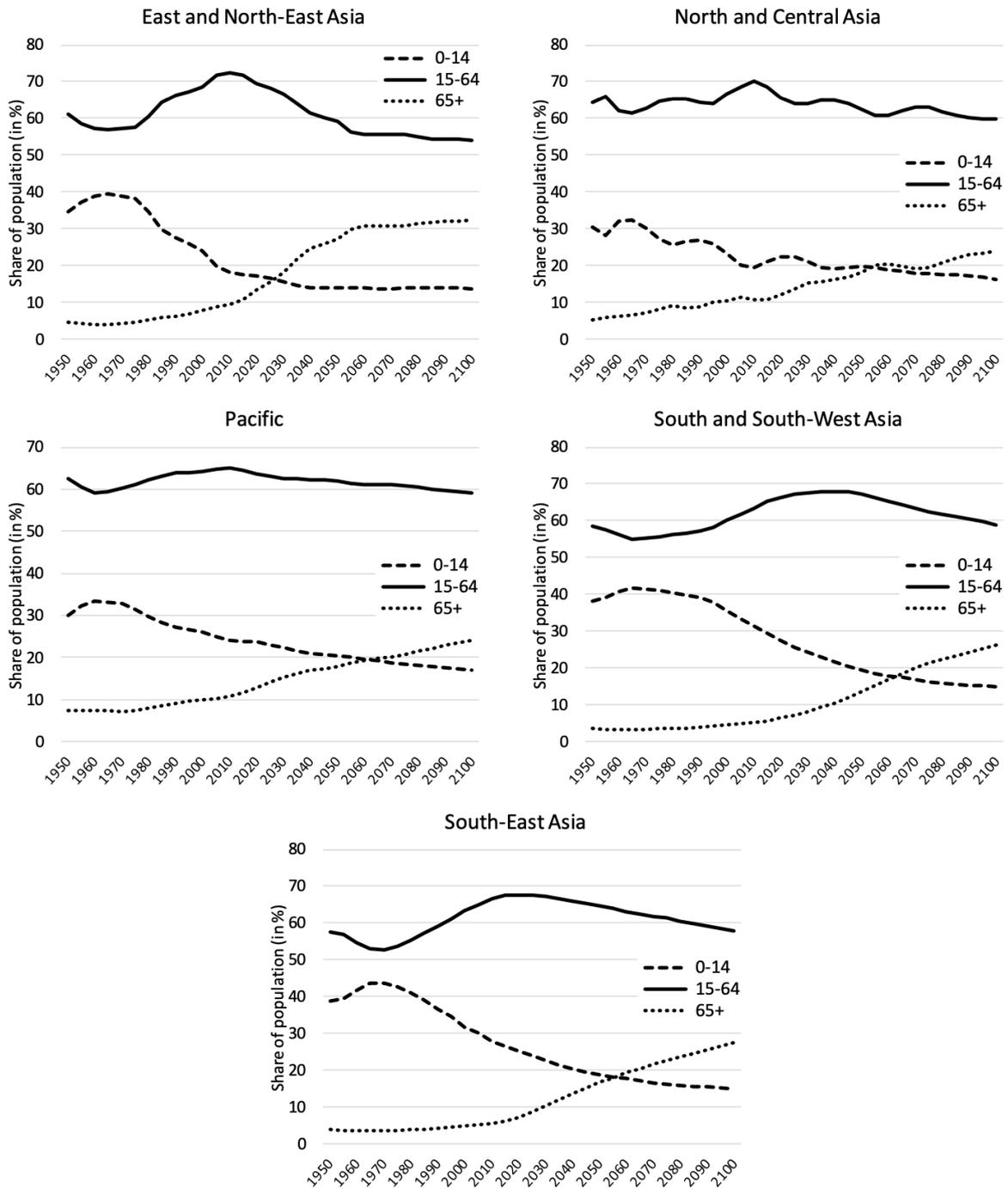
#### D. 연령 구조의 변화

앞서 언급한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는 아태지역 인구의 연령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인 패턴과 추세는 하위 지역별로 유사하지만 변화 시기에 차이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태평양에서 이미 50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그림 4). 인구 고령화 속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가장 큰 증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60년경에는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3명 중 1명이 될 것이고, 이를 제외한 모든 하위 지역에서

는 약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령 구조 변화는 그림 6의 1980년부터 2060년까지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형태에서도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몰디브,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바누아투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했다. 가장 높은 비율은 호주, 중국, 홍콩,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러시아이다. 2015/2020년 합계 출산율과 남녀 기대수명에 대한 국가별 통계와 2020년, 2040년, 2060년 15-64세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부록의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이는 노년층 구조로의 일반적인 변화 외에도 노인 여성의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성과 여성은 노년기에 비슷한 위험과 상황에 노출되지만,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범위 또는 더 심각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더 취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종종 노년기의 이러한 취약성은 생애 과정에서 불이익의 결과이기도 하다(Serrao, 2015).

그림 4. 아태지역의 하위 지역별 0-14, 15-64 및 65세 이상 연령대 인구 비율, 195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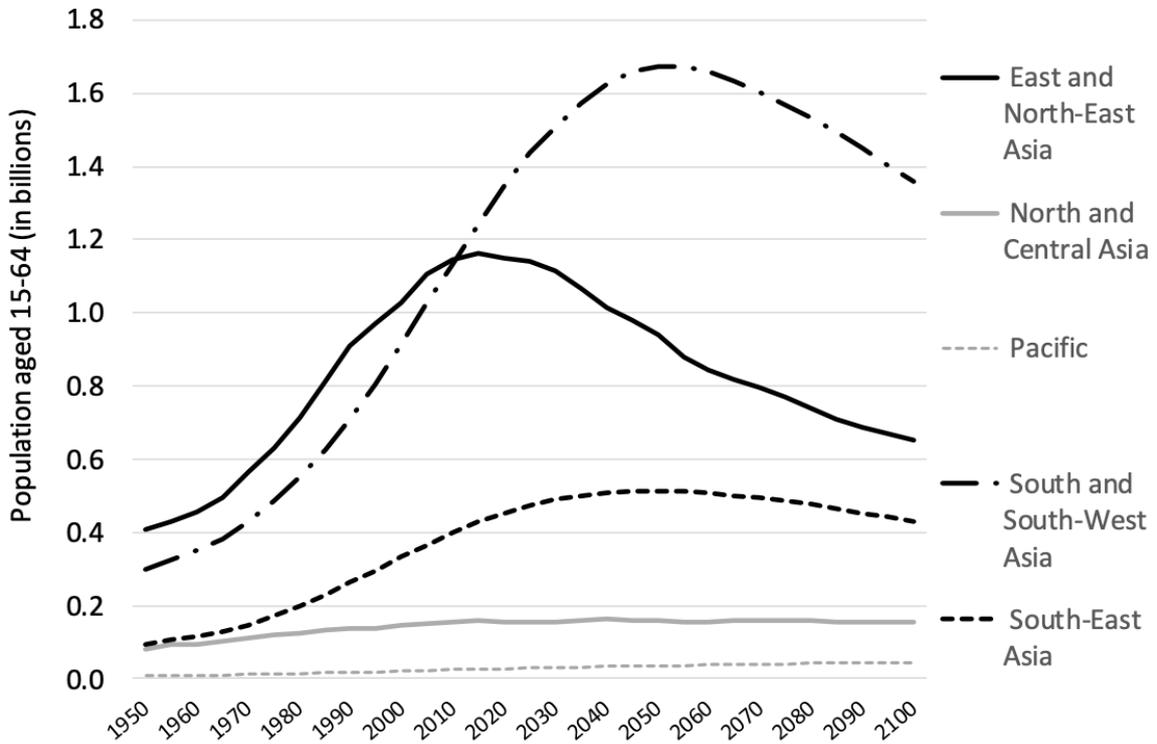


출처: UN DESA, 2019b.

출산율과 사망률의 변화도 생산연령 인구 비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아시아 및 북동아시아, 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는 이미 생산연령 인구의 최

대 비율을 초과했거나 곧 통과할 예정이지만,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에서는 2045년경까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연령 인구의 절대수는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만이 이미 정점을 넘었다(그림 5).

그림 5. 아태지역의 하위 지역별 15-64세 인구의 규모, 1950-2100년



출처: UN DESA, 2019b.

국가 수준에서 간주하면, 생산연령 인구의 절대적인 수치와 비율이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하나 또는 두 가지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현재 연령 구조와 미래 출산율 및 국제 이주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15-64세 인구의 절대 수가 금세기 내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5-64세 인구 비율은 이미 10년 전에 최고점에 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두 지표 모두 금세기 후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된다. 두 수치에서 정점을 모두 달성한 아태지역의 국가는 아르메니아, 중국, 조지아, 홍콩, 중국, 일본, 러시아, 대한민국, 싱가포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태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2060년 이전에 생산연령 인구 절대수와 생산연령 인구 비율은 각각 21개국과 18개국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표 1). 이는 국가가 현재 처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다양한 단계를 다시 한 번 나타낸다. 일부 국가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증가하는 생

산연령 인구를 위해 매년 더 생산적이고 적절한 고용 기회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미 진행 중인 또는 곧 잠재적 노동력의 감소가 예상되는 국가도 있다.

**표 1. 생산연령 인구(15-64세) 비율과 절대 인구 수가 정점에 이르는 기간(각 기간 내 가장 빠른 연도부터 가장 늦은 연도까지 아태지역 국가의 순서)**

기간	15-64세 인구 비율 정점	15-64세 인구의 절대적인 수자의 정점
2020년 까지	일본 스리랑카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연방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중국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리아 싱가포르 태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이슬람공화국) 베트남 대한민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괌 브루나이 다루살람 말레이시아 북한 몰디브	아르메니아 중국 그루지야 일본 러시아 연방 홍콩, 중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
2021년-2060년	인도네시아 칠면조 뉴칼레도니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북한 몰디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스리랑카 브루나이 다루살람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필리핀 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칠면조 방글라데시 부탄 말레이시아 네팔 인도 미얀마 괌 라오스 미크로네시아(연방)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뉴 칼레도니아
2061년-2100년	통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피지 파키스탄 바누아투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타지키스탄	필리핀 제도 통가 뉴질랜드 피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리아 사모아 파키스탄 동티모르
2100년 이후		호주 마카오, 중국 키리바시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제도 타지키스탄 바누아투

출처: UN DESA, 2019b (author's calc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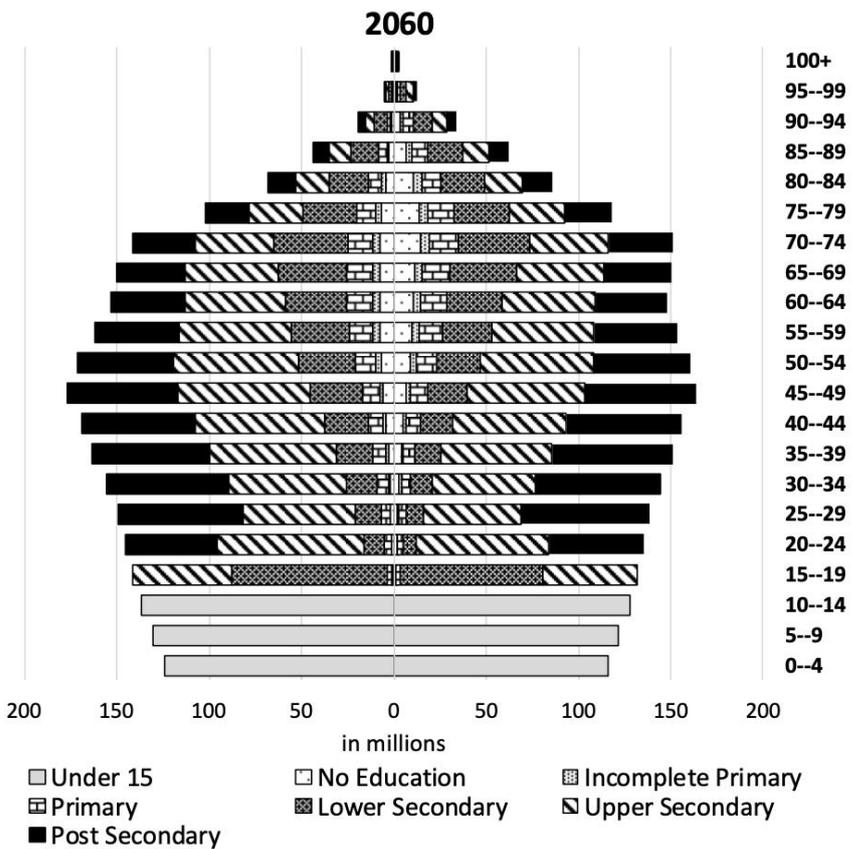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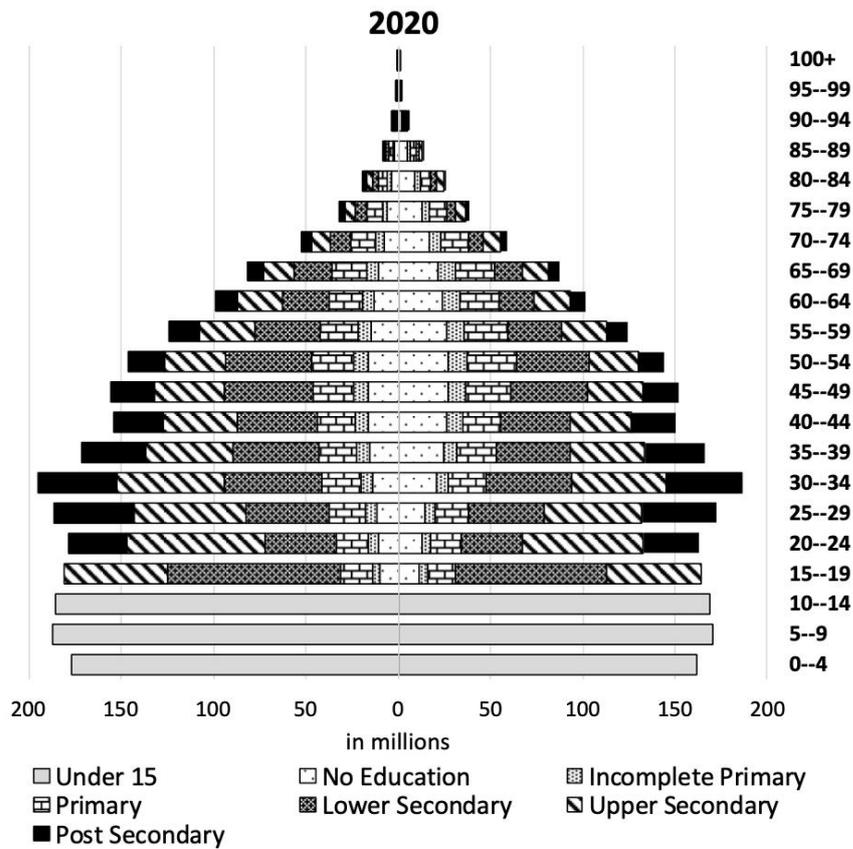
## E. 학력의 변화

연령 구조 다음으로 교육 수준이 인구 고령화의 기회와 과제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eng and Loichinger, 2017; Loichinger, 2015; Lutz et al., 2014). 주요 주장은 더 적지만 더 생산적인 노동력이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 또한 건강 발달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태지역의 모든 국가에서는 교육 확대에 의해, 미래의 노인들은 점점 더 현재의 노인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것이다. 교육과 건강 상태 사이의 긍정적인 연관성(다음 섹션 참조)은 미래의 노인들이 현재의 노인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더 나은 건강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이다(Loichinger and Pothisiri, 2018).

현재 아태지역의 15세 이상 인구 10명 중 3명은 초등교육 이수자 최대학력이다. 약 50%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14%는 중등 이후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 분포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다. 초등 교육 이하의 교육을 받은 비율은 노인 집단에서 가장 높으며, 교육 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젊은 집단에서는 거의 없다(그림 6, 상단 참조). 교육 확대에 대한 세계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미래의 세계 및 국가 교육수준 동향을 예측하여, 인구의 교육 구성의 발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Lutz et al., 2014).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아태지역의 인구는 현재부터 2060년까지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이후로 교육수준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그림 6, 하단 참조).

그림 6. 아태지역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별 인구, 2020년(상단) 및 2060년(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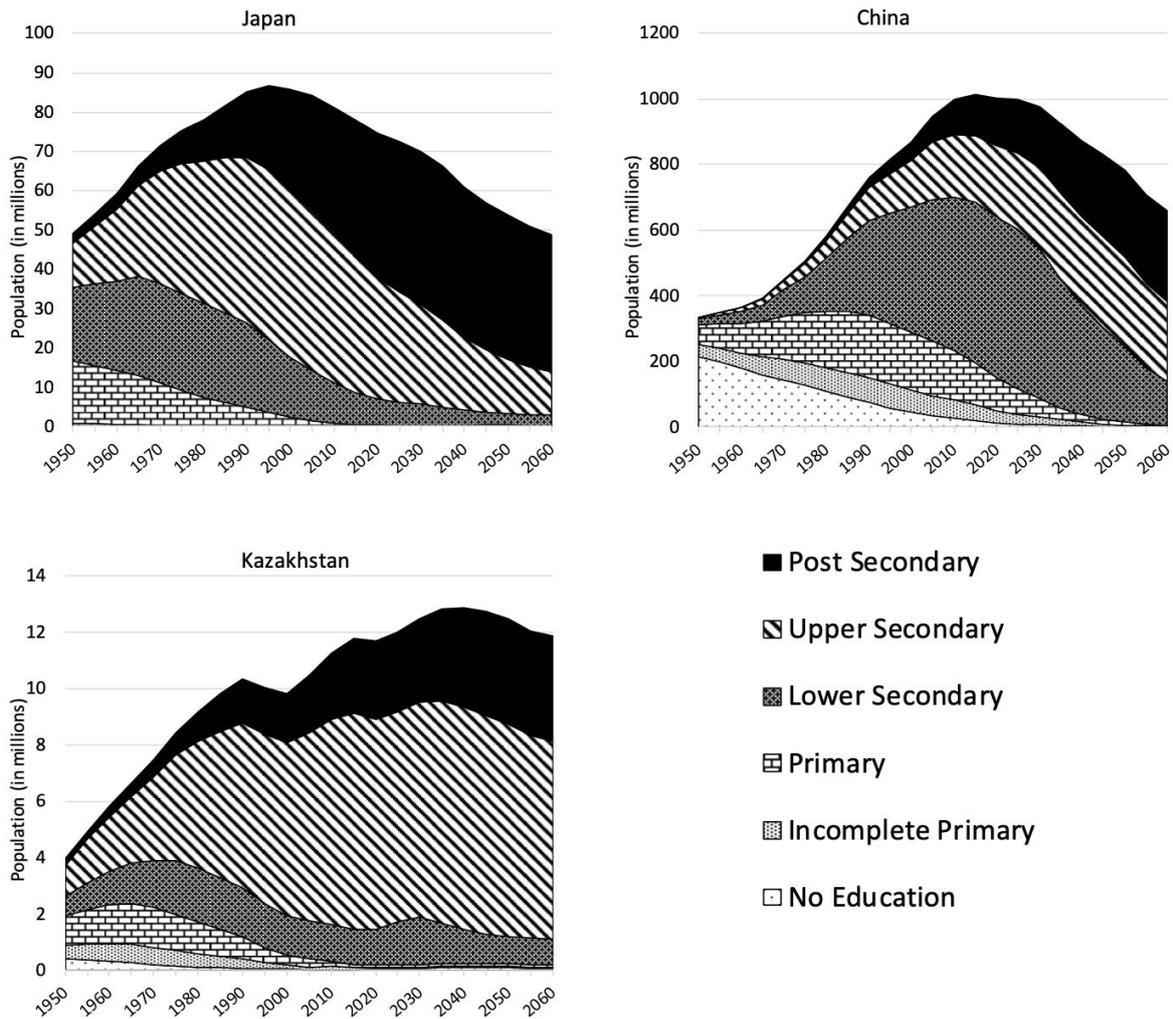


출처: Wittgenstein Centre for Demography and Global Human Capital, 2018, GET (Global education trend) education scenario. 아태지역 국가 중 데이터 가용성으로 인해 미국령 사모아, 쿡 제도, 마셜 제도, Науру, 니우에,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및 투발루 제외(author's calculations).

이 지역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개별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국가인 일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14%로 고령화 국가인 중국,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미만으로 최근까지 아직 고령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카자흐스탄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가 2000년 이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이 연령층에는 약 7,460만 명이 있으며 그 중 약 절반이 고등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생산연령 인구는 2060년까지 2,5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다(그림 7). 생산연령 인구 중 성인 10명 중 7명이 고등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등 교육 이후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추세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생산연령 인구 중 중등 및 고등 교육을 받은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생산연령 인구는 향후 20년 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2040년경에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교육 수준의 상황은 적어도 중등 및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은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중등 교육 이후의 비율은 2050년경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퇴직 연령에 가까워진 노인(이 보고서에서는 50-64세 인구로 정의)이 아태지역의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생산연령 인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020년에서 2060년 사이의 교육 구성의 국가별 예상 변화는 부록의 그림 9에 정리되어 있다. 2020년 패턴을 보면 상당수의 국가에서 50-64세 인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기껏해야 초등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연령층의 모든 사람이 이미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2060년까지 각 국가(아프가니스탄 제외)의 예상 교육 구조는 대다수의 노인이 중등 이후 교육을 받거나 중등 교육을 받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의 학력별 생산연령 인구(15-64세), 1950~2060년



출처: Wittgenstein Centre for Demography and Global Human Capital, 2018; GET (global education trend) education scenario.

## F. 나이듦과 건강

교육과 함께 건강은 인구의 인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이다. 노년층의 건강 상태는 젊은 연령층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장점과 단점은 생애 과정에 걸쳐 축적된다. 이것은 왜 전 생애 과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나중에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려준다. 성별 외에도 건강 상태는 소득, 교육 및 직업에 따라 개인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이는 인구학적 전환의 어떤 단계에서든 사회와 인구의 공중 보건 조치의 중요한 측면이다. 보편적인 사회적 건강 보호는 아이들, 생산연령의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부적절한 건강 관리로 인한 건강 악화는 개인, 가

족 및 사회 전반에 비용을 수반한다.

의료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고 조직화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다. 보편적 의료 보험은 아직 모든 곳에서 확립되지 않았으며, 의료 보험은 국가 내에서 교육, 연령 또는 고용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지출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취약하고 이미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과 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 상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면밀히 조사된다.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연금 제도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건강 결과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할 때,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연령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노동 시장, 사회 및 연금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소외된 집단이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인 산업보건에 관한 주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은퇴 연령 이후의 상황을 간주하면, 70대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돌봄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돌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지만, 장기 돌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나이 외에 많은 추가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취약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건강과 복지를 누리며 오래 살수록 돌봄 수요는 낮아진다. 건강한 나이듦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개념에는 노령 친화적 환경,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적절한 건강, 사회 서비스 및 평생 학습 등 다양한 행동 영역이 포함된다(WHO, 2020). 국가 간 노인 인구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척도는 60세의 건강 기대수명이다. 60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의 절대 수명과 남은 기대수명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 간에 매우 다양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기대수명이 높지만,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Serrao, 2015; ESCAP, 2020b).

인구통계학적 배당은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 증가가 경제성장 잠재력을 가늠케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은 교육, 보건 및 거시경제 분야에서 적절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ESCAP, 2021c). 중요한 측면은 생산연령 인구의 상당 부분이 생산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기회의 창"이 현재 열려 있고,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국가는 모두 표 1에 나열되어 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생산연령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잠재적 경제적 수익이 가장 크다.

중국, 한국, 싱가포르 및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이 단계를 경험했으며 현재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이 단계를 더 일찍 겪었다. 이 국가들이 "세 번째 인구 배당 효과(third demographic dividend)"로 분류된 것은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세 번째 인구 배당 효과는 "건강한 노인들의 미개발 노동능력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새롭게 정의된 인구배당"을 의미한다(Ogawa et al., 2021, p. 59). 이는 노동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관련 측면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 인구의 실제 노동력 참여와 잠재적 노동력 참여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예비 측정은 이들 나라가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3. 노동 수요의 특성 및 동향

생산연령 인구의 수와 비율의 추이에 대한 분석은 노동 공급 추세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데 유용하지만(3.D. 연령 구조의 변화) 이는 단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연령구조 변화가 노동 공급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실제 경제활동(노동력 참여) 및 노동의 질(공식/비공식 고용) 등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노동 수요와 관련하여 이 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난 몇 가지 일반적인 추세를 살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아태지역 국가에서 노동 시장 성과에 있어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ILO, 2021c). 도시 중심부 내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중숙련 및 고숙련 일자리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와 더불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의 비공식 고용도 증가했다. 후자는 부분적으로 농업 부문의 고용 감소와 이와 관련된 농촌에서 도시 고용으로의 이동 때문이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주요 트렌드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 공급과 수요의 변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 일자리는 기술로 인해 변화된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한다. 이는 녹색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발생한다(ILO, 2019b).

#### A. 아태지역의 노동력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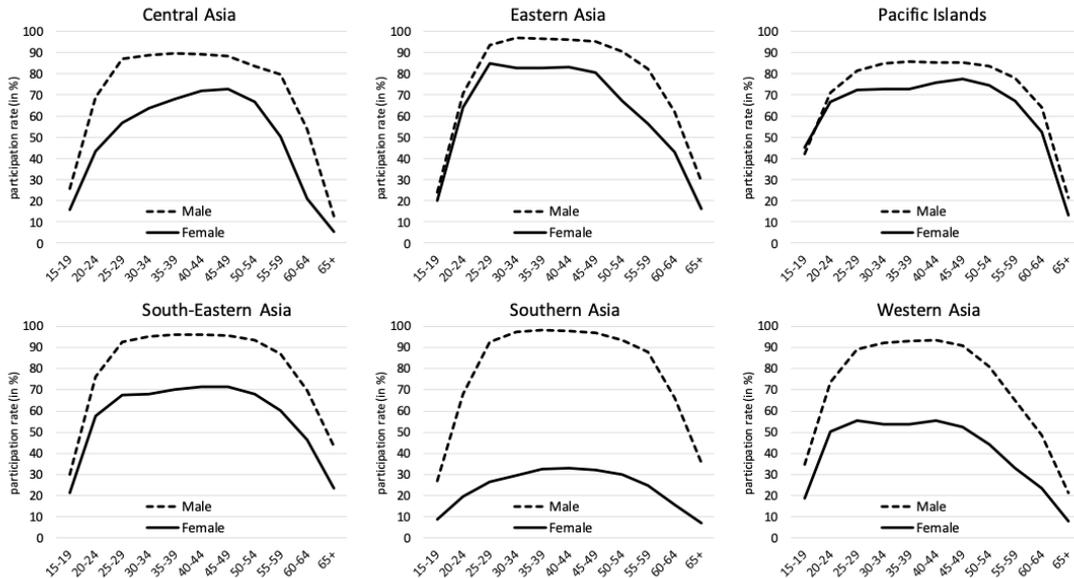
노동력은 경제 활동 인구로 구성되는데, 이는 유급 고용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의미한다. 노동력 참여 패턴은 아태지역의 하위 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더 그렇다. 주요 노동 연령층 남성의 참여율은 태평양 제도를 제외하면, 모든 국제노동기구(ILO) 소지역에서 90% 이상에 가깝다(그림 8). 여성의 경우 남아시아 성인 여성의 참여율은 30%를 조금 넘는 수준부터 동아시아의 경우 80% 이상까지 다양하다.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서 가장 낮고 남아시아에서 가장 크다. 노동력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 통계에 일관되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수치들이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자체 사용 상품 생산 및 자체 사용 서비스 제공에서 수행되는 많은 양의 무급 노동이다.<sup>3</sup> 무급 돌봄 노동(1.H. 돌봄 경제)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무급 돌봄 제공의 지속적인 성 불평등 때문에 유급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결과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ILO, 2018b).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근로 연령이 높은 근로

<sup>3</sup> See, for instance: <https://ilostat.ilo.org/resources/concepts-and-definitions/forms-of-work/>

자들이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노동 시장을 떠난다는 증거가 있다(ESCAP, 2017b).

그림 8. 일부 국제노동기구(ILO) 하위 지역의 연령 및 성별 노동력 참여율(백분율), 2019



출처: ILO, 2020b.<sup>4</sup>

전통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되었다. 국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차원(예: 도시와 농촌 지역, 인종 또는 결혼 상태)에 따른 차별화는 중요한 불균형을 드러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교육이다. 첫째,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들은 노동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 참여 수준이 다르다. 또 다른 이유는 흔히 발견되는 패턴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과 남성의 참여율 연령 패턴이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Loichinger, 2015). 국가의 노동 공급 분석에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주장은 인구의 교육 구조가 국가마다 다르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환경에서 젊은 출생 집단의 개인은 나이든 집단의 개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 성취도를 가지고 있다.

## B. 학력의 변화

다양한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 간의 노동력 참여의 차이와 인구의 교육 구성의 국가 간 차이를 함께 간주하면, 노동 공급에 대한 논의에서 교육이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알 수 있다.

<sup>4</sup> ILO country groupings: <https://ilostat.ilo.org/resources/concepts-and-definitions/classification-country-groupings/> 여기에서는 ESCAP 지역의 58개국과 키프로스, 이스라엘, 노퍽 섬, 토켈라우, 윌리스 및 포르투나 제도 등 63개국을 포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세부 소지역이 사용되었다.

인구 고령화 및 노동 공급의 맥락에서 교육 수준의 측면을 강조할 때, 여성 노동력 참여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입증되었다(Cheng and Loichinger, 2017; Loichinger and Cheng, 2018). 이 주장은 참여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심각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늘리는 것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자격을 갖춘 인력의 상당 부분을 놓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예상되는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일부 부정적인 결과는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생산적인 노동력을 가짐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주장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현재 여성 노동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태지역 국가에도 적용된다.

교육 격차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 아태지역 일부 국가의 35-44세 여성에 대한 데이터는 표 2에 제공된다. 데이터는 모든 교육 그룹의 평균만 고려했을 때 감지되지 않는 다양한 교육 수준에 대한 광범위한 결과를 보여준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교육 수준은 평균을 상회하고,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력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아태지역 일부 국가의 교육 수준별 35-44세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백분율), 2019/2020**

Year	country	Less than basic education	Basic education	Intermediate education	Advanced education	Total
2020	Afghanistan	19.1	14.5	31.3	58.5	19.4
2019	Armenia	-	55.1	58.9	81.5	63.9
2019	Brunei Darussalam	42.0	61.2	75.1	79.1	72.5
2019	Cook Islands	-	58.5	87.5	92.6	79.9
2020	Cyprus	-	69.3	79.9	89.3	84.0
2020	Georgia	12.9	35.8	51.6	73.0	59.6
2020	Hong Kong, China	-	60.0	75.7	83.9	75.4
2019	India	36.5	29.1	27.0	37.9	32.8
2020	Indonesia	66.1	60.3	58.3	79.5	62.7
2019	Iran, Islamic Republic of	17.2	15.7	15.7	47.9	23.3
2019	Kiribati	-	24.1	44.4	87.9	42.7
2020	Korea, Republic of	34.9	51.6	59.2	63.7	62.2
2019	Maldives	52.0	41.9	58.7	90.3	51.8
2019	Marshall Islands	-	29.2	30.1	91.6	37.2
2020	Mongolia	59.3	76.2	68.4	75.2	72.5
2019	Myanmar	62.6	58.9	52.8	61.5	58.9
2020	Russian Federation	-	64.9	91.3	90.0	89.5
2020	Seychelles	-	-	83.8	88.9	87.5
2020	Thailand	70.2	80.3	81.4	88.9	82.5
2019	Vanuatu	24.0	59.8	80.4	93.3	61.1
2020	Viet Nam	74.5	87.1	87.4	97.6	86.9

출처: ILO, 2020b. Data shown for the latest year of availability.

### C. 비공식 및 공식 경제에서의 고용

농업 부문을 포함하면 아태지역 근로자의 대다수, 즉 68.2%가 비공식 경제에 고용되어 있으며, 농업 부문을 포함하지 않으면 59.2%에 달한다(ILO, 2018).<sup>5</sup> 이 수치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태평양 제도가 가장 낮다. 고용 상태에서 비공식 고용 구성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은 자영업(45.5%)과 직원(34.4%)이 차지하고, 가족 근로자(17.8%)와 고용주(2.3%)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아시아 및 태평양의 모든 하위 지역에서 전체 고용에서 비공식 고용은 교육과 분명한 관계를 보여준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90% 이상이 비공식 고용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태지역에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45% 미만이다. 예외는 남아시아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그룹에서도 70%가 약간 넘는 비율이 비공식 고용 상태에 있다.

아태지역의 연령별 비공식 고용 분포를 살펴보면 U자형 패턴이 뚜렷이 드러난다. 전체 고용에서 비공식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15-24세와 65세 이상이다(85% 이상). 25-64세의 경우 해당 수치는 약 70% 이하이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거주 지역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비공식 고용이 전체 고용의 85%를 차지하는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전체 고용의 절반 미만이 비공식 고용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 발전 수준과 비공식 고용 비율은 서로 반대 양상을 띤다(ILO, 2018).

아태지역 전체에서 비공식 고용 가능성은 여성(64.1%)보다 남성(70.5%)이 더 높다. 이러한 집계 수치는 하위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대체로 1인당 GDP 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비공식 고용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비공식적인 고용의 성별 차원의 또 다른 측면은 여성이 수행하는 비공식적인 일자리의 종류가 남성이 수행하는 것보다 종종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지역 내 더 나은 고용 기회와 SDG 8의 목표 달성을 향한 진전은 더뎠다. 여기에는 노동권 보호, 청년 고용 기회 및 직장 안전 관련된 더딘 발전도 포함된다. (ESCAP, 2021b).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 시장의 취약성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ESCAP, 2018). 국제노동기구(ILO)에 속한 아태지역 대부분 국가는 국제노동기구 양질의 일자리 의제(ILO Decent Work Agenda)와 의제 2030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설정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결과는 국가 소득 수준이나 노동 시장 거버넌스의 역할과 노동 시장 구조에 대한 정책에 따라

<sup>5</sup> 국제노동기구(ILO)의 비공식 부문 및 비공식 고용 정의에 대해 다음 참조: [https://www.ilo.org/ilostat-files/Documents/description\\_IFL\\_EN.pdf](https://www.ilo.org/ilostat-files/Documents/description_IFL_EN.pdf)

크게 다르다(ILO, 2018a).

전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의 증가는 비공식적인 고용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ILO, 2018c). 모든 국가의 교육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태지역 국가의 비공식 고용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D. 사회적 보호와 노동의 미래**

사회적 보호 또는 사회보장은 양질의 일자리의 기본적인 측면이다. 이는 "...인권이며, 생애주기에 걸쳐 빈곤, 취약성,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ILO, 2021d, p. 226). 이는 9개의 주요 영역을 다룬다. 가족 및 자녀를 위한 혜택, 산모 보호, 실직 시 지원, 고용상해 혜택, 질병 시 지원, 건강보호, 노년 혜택, 장애 혜택, 그리고 생존자를 위한 혜택이 이에 속한다. 이는 사회적 보호가 특정 생애 단계 또는 특정 생애 사건의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재해, 경제위기 또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로부터 보호한다(ESCAP and ILO, 2021).

사회보호는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혜택은 기여형 또는 비기여형 제도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후자는 대부분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거나 두 제도가 혼합되어 있다. 아태지역의 사회보호제도의 존재와 포괄성의 차이는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보호는 모든 개발 수준의 국가에서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 노동의 미래를 논할 때 생산연령 인구와 퇴직연령 인구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어린이는 미래의 노동자로 성장하며 이들의 사회적 보호는 다른 사회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존중 받아야 한다. 이는 생애주기적 접근과 적극적인 세대간 연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보호의 강화는 전반적인 사회, 경제 및 환경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빈곤의 예방과 인간 복지의 향상, 아이들 교육에 대한 투자와 더 높은 생산성을 통한 포용적 경제 성장의 가능성, 그리고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한 적응과 환경 위험에 대한 회복력이 이에 속한다(ESCAP and ILO, 2021).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는 지역간 사회보장 범위에 대한 격차가 존재한다. 지속적인 문제는 기여금 제도가 주로 공식 노동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비기여 제도는 비공식 근로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지만 지원 수준은 낮은 경우가 많다. 이 지역 근로자의 약 70%가 비공식 근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수의 개인과 가구에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긴급 지원 제도가 팬데믹에 직면하여 설립되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소득 격차, 빈곤 및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많은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발전을 무색케 했다. 빠르게 도입된 긴급 지원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보다 영구적인 제도로 변모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ESCAP(2020)의 작업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의 생애주기 중 다양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보호 상황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 **아동**

아동기의 빈곤과 박탈은 전 생애에 걸쳐 교육, 인지 발달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치면 개인과 사회 전반적으로 해롭다. 아동에 관한 사회적 지원 계획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현금 혜택, 현물 혜택, 세금 감면 및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 성별에 맞춰 설계하면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서비스 옵션은 여성의 미지급 돌봄 의무를 덜어주어 유급 노동 시장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아이들 또는 아이가 있는 가구들은 아동 또는 가족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카자흐스탄은 두 명 중 한 명 이상의 아이들 또는 아이가 있는 가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 **생산연령에 속한 사람**

생산연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 소득과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여성의 출산 전후와 부모 역할 과정에서 불충분한 사회적 보호는 여성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잘 설계된 출산, 육아 및 육아 휴직 정책은 성평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부모는 육아 책임을 공유할 수 있고, 여성은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장벽이 낮아진다. 실업 수당은 대부분 이전의 기여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아태지역의 노동력 중 많은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비기여적 제도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혜택을 제공한다. 팬데믹은 실업자 급증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중국은 팬데믹 이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실업 수당 자격을 확대한 국가 중 하나이다. 질병 혜택은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중요성이 생생하게 입증된 혜택의 또 다른 예이다. 상해 시 혜택은 특히 공식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장애 혜택에 관해서는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는 혜택이 있어도 그 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신청도 복잡하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생산연령층을 위한 모든 사회보호 제도의 기본 과제는 이주 노동자가 많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어려움과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

## 노인

가족 내에서 노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는 상황은 점점 더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나이가 많은 가족에 비해 젊은 가족 구성원이 더 적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기여형 제도와 비기여형 제도가 혼합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안이 되기도 하고, 기여 시스템의 혜택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는 서로를 보완하기도 한다. 다른 사회보호 분야에 비해 노령연금의 보장 범위는 높지만 많은 경우 충분하지 않다. 다른 분야의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비기여 제도의 설계는 의도한 목표 대상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여 많은 국가에서 기여 제도가 개혁되고 있다. 은퇴 연령의 증가, 기여금 인상 및 혜택 삭감 등이 가능한 조치이다. 또한 혜택이 주식 시장의 성과에 의존하는 개인 계정이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이는 미래의 연금 혜택의 위험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모든 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기 전에 인구의 하위 집단에 대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성별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노년기에 남성보다 더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년 보호 시스템이 이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E. 노인의 노동력 참여

전 세계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인 은퇴 연령을 넘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 연금 제도나 기타 사회보장 제도가 없거나, 기존 제도의 혜택이 충분하지 않고, 기타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연령에 노동을 그만두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가 상황에 따라 기존 연금 제도는 인구의 일부(예: 공식 고용자 또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거나, 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그만두는 사람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동시에 노인의 낮은 실업률은 노동력을 숨기고 실제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를 나타내기보다는 권장되지 않는 노동자 효과의 결과일 수 있다(Gamarano, 2018).

아태지역 노인의 노동력 참여에 관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경제 발전의 수준이 다르고 그에 따른 노인에 대한 사회보호 제도의 존재 및 포괄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제공하는 부록의 표 5와 6은 아태지역 국가의 60-64세 그리고 65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 참여 추이를 시간 경과에 따라 보여준다. 60-64세 연령층의 참여율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여성의 참여가 남

성의 참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서 시작된 배경과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소득 수준별로 표시된 아태지역의 노동력 참여율을 살펴보면, 고소득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현저한 증가세가 보이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다른 소득 집단에서는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참여율이 낮은 패턴은 65세 이상 연령층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노년층의 노동력 참여와 노동력 이탈 결정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인 퇴직 연령 이후에 일을 하면 근무 시간이 단축되거나 직업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재정적 고려 외에도 건강 상태는 은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손주가 있을 때, 그들을 돌보려는 욕구나 필요성으로 인해 조부모(보통 할머니)의 노동 시장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 후자에 대한 증거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보고되었다(Backhaus and Barslund, 2021). 미래에는 자녀가 없거나 파트너나 자녀도 없는 노인의 수가 증가가 노동 공급 결정에 점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의 정책 상황에 따라 독신이거나 세대 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할 사회보장 조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 근로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활동과 사고를 위해 노동 환경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재정적 고려 이외의 이유로 인해 노인의 노동력 참여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최근 태국 고령 근로자의 노동 공급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건강 상태와 연금의 역할을 보여준다(Paweenawat and Liao, 2021). 태국은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 수준 이하로 빠르게 감소하여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태국의 경우 노인을 위한 여러 혜택 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태국 노인들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이 좋지 않으면 노동 참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금 혜택을 받는 효과는 근로 지위가 낮은 근로자와 높은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공식 근로자와 비공식 근로자가 받는 혜택 금액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혜택과 기타 재정 지원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태국 노인들은 은퇴할 여유가 없을 수 있다.

ASEAN+6 국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따르면, 이미 노동력 감소에 직면해 있거나 곧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즉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태국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시장 정책을 도입했다(ILO, 2019d).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국가는 인구 노령화와 노인의 상황을 다루는 계획 및 정책을 통과시켰지만, 앞서 언급된 국가는 근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한 국가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은퇴가 늦으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연금 혜택이 나중에 지급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 수명 연장을 목표로 도입된 정책의 예는 다음과 같다(ILO, 2019d, p. 52).

- 법정 정년 연장(일본, 싱가포르, 태국) 또는 법정 의무 정년 폐지(호주, 뉴질랜드)
- 연령차별 방지
- 유연근무제 도입 등 고령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 고령자의 창업을 돕기 위한 대출
- 취업 알선을 통해 실직한 고령 근로자 지원
- 자원봉사활동 장려
- 기능훈련 및 평생학습 활성화

정부, 고용주 노조 및 시민 사회는 근로 선택을 개선하고 고령화 고용을 촉진하며 근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OECD(2019)는 세 가지 광범위한 영역의 문제를 다루는 고령화 및 고용에 관한 위원회 권고안을 작성했다. 1) 늦은 퇴직을 장려하고 보상하기 위한 연금 시스템 재설계 및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기 퇴직 제도의 제한, 2) 연령차별을 다루는 법안 도입 및 연공서열 기반 급여 체계 개혁 등 고용주가 노인 근로자를 유지하고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조치, 3) 고용 가능성을 촉진하는 조치, 평생 학습 기회에 대한 접근성 강화, 그리고 모든 연령층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등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종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 등이 세 가지 영역에 속한다. 일본과 한국은 임금 결정 관행을 개혁하기 시작한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흔하며, 이는 두 국가의 노년층 근로자가 고용 상태를 유지하려면 직업을 바꾸고 소득 감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식적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F.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노동 수명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 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아동기와 청년기에 받은 교육 환경은 더 이상 노동 수명 전체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기술을 고려할 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특히 노인)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4.C. 4차 산업혁명 참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다양한 학습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e-러닝 플랫폼을 도입했다(ILO, 2019d).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지속적인 기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노동 시장에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ILO, 2004). 점점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교육과 기술 향상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제도적 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기회 제공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된다. 고용주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최신 기술을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근로자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의 시장 가치를 높이고 다른 업무 기회를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 특정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투자가 더욱 매력적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 옵션에 대한 접근은 도시와 농촌 환경에 따라 다르며, 성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민간 및 공공 제공자의 구성도 다르다. 또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쉽다(ILO, 2004). 어떤 종류의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하다고 간주되고 제공되는지는 생산연령 인구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인구의 대다수가 중등 교육 이후의 교육을 소유하고 있는 환경에서, 평생 학습에 대한 수요는 낮은 수준의 교육을 가진 환경에 비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성인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특정 그룹(예: 농촌 지역 및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반면, 이전에 제외되었던 그룹이 잠재적으로 양질의 성인 교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Manzoor, 2009).

## G. 기술 수준에 따른 노동 수요 추이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 변화는 기존 직업의 기술 요구 사항의 변화를 이끌고, 이는 새로운 기술 요구 사항을 갖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현재 기술 요구 사항은 과거보다 빠르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많은 직업이 개인의 직장 생활 과정에서 기술 향상과 재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추세에는 다음과 같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높은 수준의 기술과 교육
-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 일에 대한 비공식 학습보다는 공식적인 기술을 갖춘 근로자
-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의 기술을 갖춘 근로자
- 국가를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
- 소프트 및 비인지 기술, 예를 들어 직장상사와 고용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Sakamoto and Sung, 2018)

기술 수요의 이러한 변화와 함께 노동의 성격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아시아 개발도상국

과 일부 아시아 경제에서는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일상적인 노동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비일상적인 근로에 집중된 일자리의 비율이 증가했다(AfDB, ADB, EBRD, IDB, 2018, p. 55).

자세히 살펴보면 기술 변화가 기술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경제 발전 수준, 경제의 부문별 구성,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따라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신흥 유럽(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포함)에서 기술 수요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이는 중숙련 일자리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AfDB, ADB, EBRD, IDB, 2018). 이유는 건설이나 청소와 같이 숙련도가 낮은 직업은 숙련도가 높은 직업과 마찬가지로 자동화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고임금 숙련 일자리의 증가는 저임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이 향후 5년 동안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직업과 기술에 대해 묻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설문조사는 기술 수요의 단기적인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술 변화로 인해 중단된 일자리와 해고된 근로자의 수는 신흥 직업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 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술로는 비판적 사고 및 분석 능력, 문제 해결, 자기 관리 능력, 적극적 학습 능력, 탄력성과 유연성 등이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20). 이 보고서에는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 등 아태지역의 다양한 국가에 대한 국가 프로필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요가 많은 직업이나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이들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수요가 많은 직업 중 상위 3개는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인공 지능 및 머신러닝 전문가, 그리고 정보 보안 분석가 및 빅 데이터 전문가이다.

청년층(15-24세)의 교육수준과 취업직업군을 비교하면 자격불일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에는 단점이 있지만 노동 시장 진입자의 자격 수준이 고용주의 요구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캄보디아,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및 사모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취업한 청년의 40-70%가 자격 불일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ILO, 2015). 7개 국가 중 6개 국가에서는 주로 자격 미달로 인한 불일치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만 자격 이상의 청년들의 비율이 자격 미달 청년들의 비율보다 더 컸다. 성별에 따라 그룹을 나누면 젊은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드러났지만, 명확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격과 기술 수요에 있어 지속적이고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할 때, 양질의 교육 성취를 확대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사람이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효과적인 직업 훈련은 청소년에게 지역의 많은 기업이 찾고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자격 불일치를 줄이는 것이다(UNDP, 2016).

## H. 돌봄 경제

전 세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성인과 노인은 물론 어린이를 위한 유급 및 무급 돌봄 노동의 대부분은 여성이 제공한다. 이는 여성이 소득, 근로 경력, 연금 및 유급 노동 소득과 관련된 기타 사회적 혜택에 취약하게 만드는 무급 돌봄을 주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무급 돌봄 노동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무급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은 유급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한된 수준(더 적은 시간)으로만 참여한다(ESCAP, 2020c). 이는 노동 시장의 성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3.A. 아태지역의 노동력 참여 참조). 또한 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은 무급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비공식 경제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ILO, 2018b). 동시에 현재 여성이 제공하는 무급 돌봄이 유급 노동 시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ILO, 2017). 무급 돌봄 노동과 관련된 성 불평등 및 기타 부정적 결과를 해결하는 정책에는 보육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사회보호 이전 및 혜택, 돌봄 관련 인프라, 그리고 유급 고용과 무급 돌봄 노동의 균형을 위한 휴가 정책이 포함된다(ILO, 2018b).

인구통계학적 변화, 가구 구조의 변화, 여성 노동력 참여의 변화 및 이와 관련된 돌봄 요구사항의 변화로 인해 유급 돌봄 노동이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ILO, 2018b).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돌봄 제공자는 교육, 보건 및 사회 부문에 고용되어 있으며, 가사 노동이 그 뒤를 따른다. 돌봄 제공자는 종종 이주자이자 비공식 경제의 일부이며, 이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경험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가사 노동자는 특히 취약하고 착취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돌봄 경제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규제 조치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Fiedler, 2020). 양질의 돌봄 노동을 위한 5R 프레임워크는 유급 및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많은 현재 이슈를 해결한다(ILO, 2018b).

아태지역의 기존 돌봄 서비스는 주로 보육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고 있다. 가족은 어느 국가든 노인 돌봄의 주요 공급자이며, 종종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기도 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돌봄 제공이 가족에서 국가 및 민간 시장(예: 기관 돌봄 제도 및 유급 돌봄 제공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ESCAP, 2021a). 돌봄 경제는 아태지역의 미래 일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한 부문이다. 정부, 민간 부문, 비정부 기구 및 지역 커뮤니티와 같은 다른 제공자가 이러한 돌봄을 보완하는 정도 또한 다양하다(DOP Thailand and CPS, 2018). 몇몇 국가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이 법적 책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현지 유급 돌봄 인력 부족을 점점 더 많이 메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돌봄 수요와 돌봄 제공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과제가 발생한다. ASEAN+3 국가 중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게 장기돌봄 보험 제도를

갖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접근성 및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아태지역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는 노인의 만성 건강 관리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다(ESCAP, 2021f).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 그룹의 건강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는데, 팬데믹은 이러한 서비스의 구현을 가속화했다. 기술 및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발이 필요한 만큼, 이들은 하위 집단 간의 기존 불평등을 줄이지만 악화시킬 수도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기능과 용도에 따라 관리 시스템, 통신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리고 정보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 분야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측면 중 여러 가지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 만성 질환 관리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태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입된 프로젝트의 좋은 사례로는 아프가니스탄, 호주,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도, 일본,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대한민국,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태국 및 베트남이 있다(ESCAP, 2021f).

## I.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의 이동

아태지역 국가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상황은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부 국가가 이미 특정 기술 및 특정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를 보유한 다른 국가는 노동 수요에 비해 과잉 노동 공급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ESCAP, 2020a).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 이주자들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는 돌봄 경제이다(ILO, 2019a). 외국인 가사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이다. 가족은 모든 사회에서 주요 돌봄 제공자이지만, 시설화된 돌봄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가사 돌봄 종사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맥락에서 돌봄 경제와 노동 이주가 깊게 관련되어 있다(3.H. 돌봄 경제 참조).

반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젊은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노동 수요가 있는 국가로 이주하는 것이 선호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이는 모든 기술 수준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숙련된 노동자의 공급이 그들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숙련된 노동에 대해 더 높은 보수를 지불하는 다른 국가로 이주할 수 있다. 대개 목적지 국가는 인구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국가이다. 현재 젊은 층이 많은 국가의 인구 고령화는 향후 이 지역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아태지역의 이주 보고서는 이주의 주요 특징과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

한다(ESCAP, 2020a). 아태지역의 하위 지역 내 혹은 지역 사이에서(그리고 나머지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고령화의 맥락에서 노동 이주에 초점을 맞추면 몇 가지 눈에 띄는 경향이 있다.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이 노동이민의 주요 목적지 국가이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보다 이웃 국가에서 이주가 더 자주 발생한다.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하위지역인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국가(최근까지 이민에 대해 매우 제한적임)가 노동력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노동 이민자는 주로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 출신이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태지역 내 노동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내 학생들의 이동성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현재 인도, 파키스탄, 한국 및 태국에서 상당한 수의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태평양 하위지역 내에서는 태평양 섬 국가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특정 부문의 인력 부족을 보충한다.

이주 결정은 복잡하며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출신국과 목적국의 이민 정책은 그 중 하나이며 아태지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신 국가의 정책 변화는 목적 국가로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필리핀 의료 종사자들을 타국으로의 국외 이주를 제한하는 정책이 그 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지 국가의 이민 정책은 잠재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사람과 수,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는 일본의 특정 숙련 노동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전에 가능했던 것에 비해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노동 이주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다(ABDI, OECD, ILO, 2021).

#### 4. 새로운 트렌드와 발전,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

노동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 중 하나는 전례 없는 기술적 진보로, 노동 세계와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성별, 연령, 교육 및 기술 수준, 농촌 또는 도시 생활 지역, 공식 또는 비공식 경제 고용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근로자는 기술 및 구조적 변화의 결과에 반응하는 데 있어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국가 경제와 국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았다. 팬데믹은 어떤 면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가속화했지만, 그 영향은 부문과 고용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르다. 4차 산업 혁명, 녹색 경제로의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와 같은 지속적이고 새로운 트렌드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여러 면에서 상호의존적이다.

##### A.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이전의 경제 위기가 노동계와 근로자의 상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증거는 충분하다. 코로나19는 팬데믹으로서 글로벌 규모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인적 및 물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전쟁과 자연재해의 영향과 비교할 수 있다(World Bank, 2020). 즉각적인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은 부문별로 다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거나, 접촉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및 전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숙박 부문, 식당 및 소매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Abay et al., 2020).

초기 대응은 주로 (공공) 건강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것이었고, 경제 및 사회적 조치 또한 신속하게 뒤따랐다. 이 보고서를 쓰는 시점에서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세계 경제가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미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회복할 때 국가 간 주요 차이점은 백신 출시 속도의 차이입니다(IMF, 2021). 2021년 8월 말까지 신흥 시장 경제 및 저소득 국가보다 선진 경제 국가의 인구 중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내용에서는 아태 지역의 미래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노동과 코로나19: 특히 누가 영향을 받았나?*

대체로 코로나19가 노동 상황에 미친 영향에 따라 세 가지 근로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필수 근로자 그룹에 속하는 근로자(예: 돌봄 및 보건 부문, 식품 생산 및 의료용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유지하고 원격 근무(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단기간에 그치지 않는 실직, 예: 관광 분야를 포함한 자선

사업 업계의 근로자들이 이에 속한다(World Economic Forum, 2020).

45개국에서 실시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긴급 성별 평가 조사(Rapid Gender Assessment)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약 4분의 1이 실직을 신고한 반면,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노동 연령의 여성은 같은 그룹의 남성보다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대 20%). 이 그룹의 여성들은 또한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유급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있어서 여성 자영업 근로자의 82%가 근로 시간 단축을 경험한 반면, 남성 자영업 근로자는 65%가 근로 시간 단축을 경험했다. 경제적 안정성과 무급 노동 제공에 대한 코로나19의 명확한 성별 편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현금 지원이나 사회보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다(UN Women, 2021).

전 세계적으로 노인들은 일단 감염되면 질병 및 사망 위험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나이든 여성은 돌봄 제공자이자 의료 종사자이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많은 노인 근로자가 노동 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소득과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사회적 보호는 이러한 소득 손실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에 종종 부적절했다(UN, 2020).

코로나19 팬데믹이 아태지역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 지역의 국가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저숙련 근로자 및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특히 큰 타격을 입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ILO, 2021c). 또한 팬데믹 이전에 이미 취약하고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청년, 이주민, 장애인, 원주민 및 민족 집단,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더욱 취약해졌다(ILO, 2020a).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컸다(ESCAP and ILO, 2021).

앞서 지적했듯이 이 지역의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이 사망했지만, 사회경제적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실직을 했으며, 추가적인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을 제공해야 했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이 나빠졌다. 또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고, 폭력 수준도 높아졌다(ASEAN and UN WOMEN, 2021).

완전하게 고용 상태를 잃지 않은 경우, 노동 시간 단축은 종종 심각한 소득 손실을 의미했다. 공식 근로자보다 비공식 근로자의 소득 손실이 더 컸다. 이유 중 하나는 봉쇄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서비스 부문이 비공식 고용 비율이 높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문이었기 때문이다(World Bank, 2020).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다른 일부 비공식

직업에 대해 가능했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선택지가 부족했다. 비공식 근로자와 기업들은 제한된 저축과 다른 금융 수단에 대한 접근, 사회 보험 프로그램에 의한 보호가 빈약해 소득 손실이 장기화되는 동안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World Bank, 2020). 카자흐스탄은 비공식 근로자에게 단기 현금 혜택을 제공한 국가 중 하나이다.

회사 규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 부문의 많은 소규모 기업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이 부문에 대한 국가 의존도는 중산층에 속한 많은 태국인이 빈곤의 위협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The Asia Foundation, 2021).

### **코로나19 시대의 노동 이주**

여행 제한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 간 이주가 급격히 감소했다. 직장을 잃었지만 이주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sup>6</sup> 이는 아태지역에서 해당 지역 국가와 세계 다른 지역 사이의 귀환 이주가 높아졌고, 국가 간의 송금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예를 들어 캄보디아와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ILO, 2021c).

### **교육의 붕괴와 교육수준의 저하**

봉쇄, 학교 폐쇄 및 홈스쿨링은 전 세계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에 있어서 중단과 상실을 의미했다. 아태지역의 약 3억 2,500만 명의 어린이가 학습 경험의 중단을 경험했다(UNICEF, 2020). 인터넷 접속, 정보 기술 장비의 존재 및 원격 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그리고 가정의 부의 수준에 따라 불균등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누락되기도 했다.

학습 결과의 손실이 향후 몇 년 동안 얼마나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부 어린이는 학교 폐쇄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지만, 교육 및 훈련의 영구적인 부족으로 인해 남은 생애 동안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도 있는 어린이도 존재한다. 현재 젊은 세대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부분적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취한 조치와 정책에 달려 있다. 교육 및 기술 습득의 중단은 미래 노동력의 노동 공급 및 인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단된 학습을 회복하기 위한 아태지역 국가의 조치에는 추가적인 학교 상담사 제공과 심리 지원(아르메니아와 일본), 대면 수업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학교 커리큘럼 조정(파푸아 뉴기니와 타지키스탄), 교육 과정 조정(필리핀), 보충 학습 프로그램(캄보디아)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과 하이브리드 학습 접근법은 인도와 라오스에서 사용되었다(UNESCO, 2021). 일부 국가들은 대부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한 어린

---

<sup>6</sup> 여기서 초점은 국제 이주에 있다. 그러나 봉쇄는 이전에 일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국가 내 이주 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노동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인생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이전의 경제 위기는 전 생애 과정에서 이러한 전환이 중요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계획대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경력 초기에 실업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청년들의 소득과 고용 전망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ILO, 2020a).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 또는 장거리 학습으로 인한 교육 손실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초등 및 고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결을 위한 초기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특히 불리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유아 교육으로부터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산 연령 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현재 젊은 집단의 인적 자원 지원이 중요하다.

생산연령 인구의 규모와 비율의 손실의 일부는 은퇴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젊은 집단의 더 높은 생산성으로 보충될 수 있다는 의견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의 맥락에서 일찍이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 **글로벌 공급망**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및 지역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공장 폐쇄로 인한 생산 중단은 이 공장으로부터 생산되는 물질에 의존하는 기업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생산 감소 또는 심지어 생산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한다. 이는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제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 다각화가 제한적인 경제에 외부 충격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고, 제한된 사회적 보호를 받는 근로자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에 대한 질문은 미래의 혼란에 더 잘 대비하는 맥락에서 제기되었다(ILO, 2021c). 제조업과 관광업이 모두 국내총생산(GDP)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태국이 그 예이다(ILO, 2021c).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 조직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정책 대응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했다. 질병의 확산을 제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경제와 노동 시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었다(ILO, 2021).

## B. 녹색 경제로의 전환

인간의 생산 및 소비 패턴과 관련된 핵심 문제는 그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지구 환경 내에서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여기서 한 가지 측면일 뿐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생물 다양성 손실과 토양 고갈이 이에 속한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경제 성장의 관점이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친환경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녹색 일자리 창출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녹색 일자리는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특징지어진다(ILO, 2019b). 이것은 미래의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직업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다. 나이든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재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간의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 권고에서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중 보건 문제에서 환경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발전하면서 세계는 녹색 회복(green recovery)으로 전환하고 있다"(ESCAP, 2021d). 이 노력의 핵심 단어는 도입되는 모든 정책에 대한 탄력성,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입니다. 이를 통해 팬데믹 이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전략인 '녹색화(greener)'는 2030 의제 이행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두고 '스위트 스팟(sweet spot)을 찾아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ESCAP의 환경 및 개발 부서는 녹색 회복과 녹색 성장을 위한 스위트 스팟을 코로나19 대응 조치, 아태지역의 빈곤층의 요구, 국가 결정 기여의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의 교차점으로 정의한다(ESCAP Environ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2020). 그들은 6가지 행동 영역을 잠재적인 최적 지점으로 구분한다. 아태지역 경제의 주요 탄소 배출원은 에너지 부문과 토지 이용 변화 및 산림이다(ESCAP Environ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2020, p. 10). 나머지 4개 부문은 수송, 항공 여행 및 관광, 물 및 폐기물 관리, 그리고 재해 위험 관리이다. 예를 들어 여행 및 관광 부문에서 가능한 행동 영역은 녹색 여행 방법과 생태 관광에 대한 투자이다. 아태지역의 여러 국가가 이 부문에서 상당한 GDP 비중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 부문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명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부문에 대한 분석도 "스위트 스팟"에 해당하는 정책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맥락에서 도입되었지만(가장 두드러지게는 재해 위험 관리 부문에서), 아직도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조치를 위한 재정 예산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완화 및 적응을 해결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각 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태국의 경우, 팬데믹이 닥치기 전부터 환경 파괴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직면해 있었다. 건설업과 관광업의 일자리를 "녹색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요구와 격차를 파악했고, 녹색 성장을 위한 미래 교육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Esposto, 2016).

현재 녹색 일자리의 상황을 묘사하고 미래 일자리의 잠재력을 예측하는 것이 녹색 일자리 매핑 연구의 목표이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녹색 성장 전략을 설계하기 전에 상황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과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수행되었다(ILO, 2014).

### C.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혁명은 로봇 공학, 3D 프린팅, 인공 지능, 머신러닝, 생명 공학, 블록체인, 모바일 인터넷 및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신기술에 의해 주도된다(AfDB, ADB, EBRD, IDB, 2018). 자동화가 일자리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초기 연구는 자동화의 부정적인 잠재적 영향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의 더 넓은 의미를 살펴보는 심층 분석, 노동력을 로봇과 기계로 대체하는 비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평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려를 통해 다른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부 직업은 실제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지만, 변화가 필요한 직업이 있을 수 있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측면은 한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다른 부문의 수요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는 고용 비율이 낮은 부문에 로봇 공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및 중기적으로 일자리 손실 위험이 낮아 보인다(AfDB, ADB, EBRD, IDB, 2018). 이는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를 고소득 국가로 리쇼어링(reshoring)하는 것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업 구조 및 생산 프로세스와 관련된 변화 가운데,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근로자는 서로 다른 영향을 받고 적응 능력도 다양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근로자 하위 그룹 간의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고소득 국가에 비해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덜 발달하고 덜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동화로 인한 복지 비용이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AfDB, ADB, EBRD, IDB, 2018).

아태지역의 주민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 수는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과 유사하다. 아시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의 수는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상당히 증가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ABDI, OECD, ILO, 2021, p. 62). 이는 아시아 인구 100명당 고정 광대역 가입 수를 통해 할 수 있는데, 2005년 이후 증가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수준은 여전히 낮다(AfDB, ADB, EBRD, IDB, 2018).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각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사

용하면 이론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서나 작업할 수 있으며 이주를 할 필요가 없다. 근무 장소와 시간의 유연성은 여성, 장애인 근로자, 난민, 그리고 이주 근로자 등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ILO, 2021b). 이러한 발전의 단점은 고용이 자영업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AfDB, ADB, EBRD, IDB, 2018). 디지털 플랫폼의 모든 직업이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과 자영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ILO, 2021b). 지역 내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와 거버넌스는 국가마다 다르다.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은 위치 기반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사용되는 차량 호출 산업(ride-hailing industry)에 대해 엄격한 법률을 도입한 국가이다. 비위치 기반 플랫폼 사이트는 부분적으로 노동자와 사회보호를 둘러싼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훨씬 덜 규제되고 있다(ILO, 2019d).

특히 선진국에서는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의 확산으로 공식 부문의 특정 직업에 대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주, 월 또는 연간 지정된 일수 동안 원격으로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예를 들어 정보 기술 전문가와 같이 공급이 부족한 특정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위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의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원격 근무 및 근로 시간 유연성은 점점 더 노동 계약의 일부가 되고 일자리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원격 근무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복지에 있어 여러 가지 과제를 가져온다(World Economic Forum, 2020).

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신이 국내 노동 시장과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기술은 노동 이주의 맥락과 가능성도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여행, 금융 자원에 대한 접근, 삶의 질에 대한 정보, 그리고 목적지 국가의 이민자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있다(ABDI, OECD, ILO, 2021).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많은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추세로 인한 잠재적인 이익은 다양한 기술 수준을 가진 개인과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디지털 기술은 정보에 접근하고 연결을 유지하며 송금을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 **D.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과 대응**

재해와 기후 변화는 생계 파괴, 사회 붕괴, 경제적 손실 초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을 일으킨다. 아태지역의 인구는 오랫동안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왔다. 자연 재해에 대한 국가의 회복력의 진전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 자연 재해 및 생물학적 재해(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재해 위험 감소 및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위험 환경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서로 상호 작용하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회복력을 높이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

다(ESCAP, 2021e). 재해의 연쇄적 영향은 많은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기반 시설 및 재산 피해가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는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홍수가 전기 기반 시설을 파괴하면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노인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특히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일본은 정기적으로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이 나라는 재난 위험 감소 계획 및 대피 훈련에 노인을 포함시킨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다른 국가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ESCAP, 2017b). 다른 예로는 방글라데시의 위험 감소 계획에서 노인을 우선시하고, 미얀마의 재난 비상 계획에 노인을 포함하는 목표가 있다 (UNFPA, 2017). 두 가지 노력은 고령화에 관한 각 나라들의 국가 계획의 일부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환경 및 기후 변화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들의 참여는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고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국가 차원)를 지원할 수 있다. 반면에 그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노인 협회나 기타 자원 봉사 단체를 통해 스스로(지역 및 지역 사회 수준) 구체적인 활동을 홍보하고 그 일부가 될 수 있다(ESCAP, 2021g). 그 예로는 노인들의 방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계획이 있으며, 이는 지역 차원에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는 모든 전략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커뮤니티의 다양한 자원 수준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접근이 제한적일 때, 대면 상호 작용은 더 광범위한 잠재적 참여를 위해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긴급 사회보호 제도가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충격이 닦쳤을 때 비상 대응에 의존하기보다는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충격에 대비하고 처음부터 인구의 회복력을 높이는 조치를 포함한다면, 재난으로 인한 취약성을 더 잘 피할 수 있다(ESCAP, 2021e).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생계는 날씨에 의존한다. 이들의 소득 상황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적절한 사회보호 정책은 충격 발생 시 더 큰 준비와 더 나은 보호를 통해 더 나은 회복력을 제공할 수 있다(ESCAP 및 ILO, 2021). 실직 근로자에게 긴급 고용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2009년 필리핀에서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분배를 넘어서 사회보호와 건강 보험을 추가로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을 지원한다(ILO, 2019a).

## 5. 결론 및 권고사항

아태지역의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는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의 결과이다. 처음에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노년인구의 비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노인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은 다양한 단계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노동력 부족에 어떻게 대응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인가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과거와 현재의 교육 수준과 근로 자격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인구는 고령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 중요한 변화는 미래의 노동 공급 및 건강 결과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환경 및 기후 변화가 노동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의 노동에 대한 기회와 과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기술적 및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면에서 상호의존적이기도 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의 회복력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는 열쇠이다. 인구의 다양한 그룹은 다양한 수준의 취약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람들의 삶, 노동 시장 및 지역 경제의 혼란은 기존의 많은 과제를 악화시키고 여러 발전을 후퇴시켰다. 동시에 팬데믹은 디지털화와 "녹색 회복(green recoveries)" 기회에 관한 지속적인 개발을 가속화하기도 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인구 고령화 및 미래 위기에 대비한 사회보호 강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건들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극복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다. 아태지역의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면에서 유사한 미래 사건에 대비하여 더 잘 준비되어 있다. 다음 팬데믹이나 기타 위기는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과정 동안 노동 세계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일어난 특정한 변화는 미래의 위기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호 제도를 확립한 국가는 임시적으로 마련한 국가보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보호 조치는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조치의 설계는 평가되어야 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회보호 계획의 영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는 실업률과 소득 손실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도입된 최근 제도에 적용 될 수 있다.

이 지역은 과거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이들 중 많은 부분이 비공식 경제에 속해 있었다. 사회가 인구 고령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 생애 과정에 걸쳐 보편적인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황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각 국가의 기존 보장 수준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노동 이주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사회보호 제도 적용 범위에 대해 더 많은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적인 교육 수준의 증가는 비공식 고용 감소 및 공식 고용 증가와 관련이 있다. 아태지역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공식적인 고용을 가진 국가들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노동 구조에 따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근로 배치만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는 국가 노동 시장 규정과 사회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근로 보호를 목표로 새로 도입된 노동법을 선도하고 있다.

경제적인 의료 시스템은 사회보호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건강과 건강한 나이들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인구 고령화에 필수적인 문제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은 특히 노인이 만성 질환을 관리해야 할 때 노인의 건강 및 장기 치료의 접근성과 품질을 촉진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건강은 노인 복지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생애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에게 경제적이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 공급 및 사회 지원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거시 경제적 측면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평생 교육 및 훈련 활성화**

고품질 교육과 평생 학습을 통해 근로자는 현재 및 미래의 노동 시장 변화와 과제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직장 생활 전반에 걸쳐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디지털화와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노동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수요가 있는 노동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젊은 인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균적으로 그들은 과거 또는 현재 세대의 근로자보다 노동 기간 동

안 재교육 및 기술 향상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인력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모든 근로자 그룹과 그들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교육 및 훈련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숙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등교육을 받은 졸업생뿐만 아니라 기술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숙련된 인력도 필요할 것이다.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국가 노동 시장의 구조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요구와 근로자의 기술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교육은 단순히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노동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반영하는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은 학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교육과 사람들의 기회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SDG 4)에 대한 투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민자의 기술 개발과 외국 자격, 교육 및 기술에 대한 인식 강화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 **생애 주기 과정 접근 방식 취하기**

생애 주기 과정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모든 정책 분야에 적용된다. 생애과정에 따라 장단점이 축적되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동연령 전반에 걸쳐 생애 초기에 발생한 상황의 결과이다. 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모든 연령의 어린이 및 성인에 관한 정책이 해당 지역의 미래 노인들의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의 빈곤과 박탈은 전 생애 과정에 걸쳐 교육 결과, 인지 발달 및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치면 개인과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친다. 마찬가지로 근로 연령 동안의 사회적 보호는 노인의 건강 상태, 소득 상황 및 근로 수명 연장에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성별에 대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여러 측면에서 노년기에 비슷한 위험과 상황에 노출되지만,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범위에서 또는 더 심각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더 취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노년기의 이러한 취약성은 비공식 고용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 특히 무급 돌봄 노동 제공에서 여성의 주요 역할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평생 동안 및 노년기에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인생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 **근로 장벽의 제거**

유급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취업하는 데에는 기존의 다양한 장벽이 존재한다. 근로자의 연령이나 기타 특성에 따른 차별은 공평한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없어야 한다. 유급 노동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참여 차이는 노동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기존의 방해 요인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잘 설계된 출산, 육아 및 육아 휴직 정책은 양성 평등을 향상시켜 부모가 육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고,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장벽을 낮춰줄 수 있다. 이는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존재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보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의 다양한 이점을 가져온다.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근로 수명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의 관점에서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선과 고용주의 관점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투자, 유지 및 고용을 위한 장벽의 제거를 요구한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는 법정 퇴직 연령을 늘리는 것이다. 노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조치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부문 간 정책 수립을 촉진**

본 보고서 전반에 걸쳐 설명된 바와 같이, 인구 고령화의 맥락에서 노동의 미래와 관련된 많은 정책은 교육 또는 노동 시장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정책 영역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부문 간 정책 결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들이 서로 보완 및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보호 제도의 과정과 설계에 정부 및 비정부 등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증거가 있다. 프로세스 초기에 다양한 그룹의 관점, 통찰력 및 요구 사항을 결합하면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지 않는 프로세스에 비해 더 포괄적이고 맞춤형 정책을 만들 수 있다.

한 국가에서 성공한 것으로 입증된 정책은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잠재성이란 장점이 있지만, 각 국가의 상황에 따른 차이가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고 정책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함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는 정부 수준 간 관할권의 차이와 좋은 거버넌스, 강력한 기관,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및 효율적인 자원 할당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이 모든 요소는 결과와 관련이 있으며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르기도 하다.

##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세분화된 데이터 제공 강화**

이슈의 주제가 무엇이든,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의 형태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제 및 관련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슈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이해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이해관계자의 추가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 및 노동 시장 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및 직업 수요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다.

노동력 참여, 교육 수준, 빈곤 또는 사회보호 제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종합 통계는 모집단의 하위 그룹에 대한 독특한 성향을 숨길 수 있다. 특정 인구 집단의 취약성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단의 특성별로 분류된 데이터와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동의 미래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영역에서 다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하려면, 성별에 따른 통계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별은 데이터를 이상적으로 분류해야 하는 많은 특성 중 하나일 뿐이다. 장애 상태는 종종 데이터화 되지 않으며, 이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주 상태 및 민족성과 같은 부문에서도 더 많은 차원의 데이터가 추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구별 또는 데이터의 지역적 분리는 현상의 공간적 분포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 **앞으로 나아갈 길**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기술적 및 환경적 변화의 맥락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노동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ILO, 2019e, p. 13).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문제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이는 또한 "코로나19 대응, 기후 변화 행동 및 빈곤 감소가 수렴될 수 있는 녹색 회복을 위한 '스위트 스팟(sweet spot)'의 잠재력을 제공했다"(ESCAP Environ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2020, p.1).

## 부록

표 3. ESCAP 회원 및 준회원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북부 및 중앙 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중국	아르메니아	아메리칸 사모아	브루나이 다루	아프가니스탄
북한	아제르바이잔	호주	살람	방글라데시
홍콩, 중국	그루지야	쿡 제도	캄보디아	부탄
일본	카자흐스탄	피지	인도네시아	인도
마카오, 중국	키르기스스탄	프랑스령 폴리네	라오스	이란
몽골리아	러시아	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대한민국	타지키스탄	괌	미얀마	네팔
	투르크메니스탄	키리바시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마셜 제도	싱가포르	스리랑카
		미크로네시아(연	태국	튀르키예
		방 국가)	동티모르	
		나우루	베트남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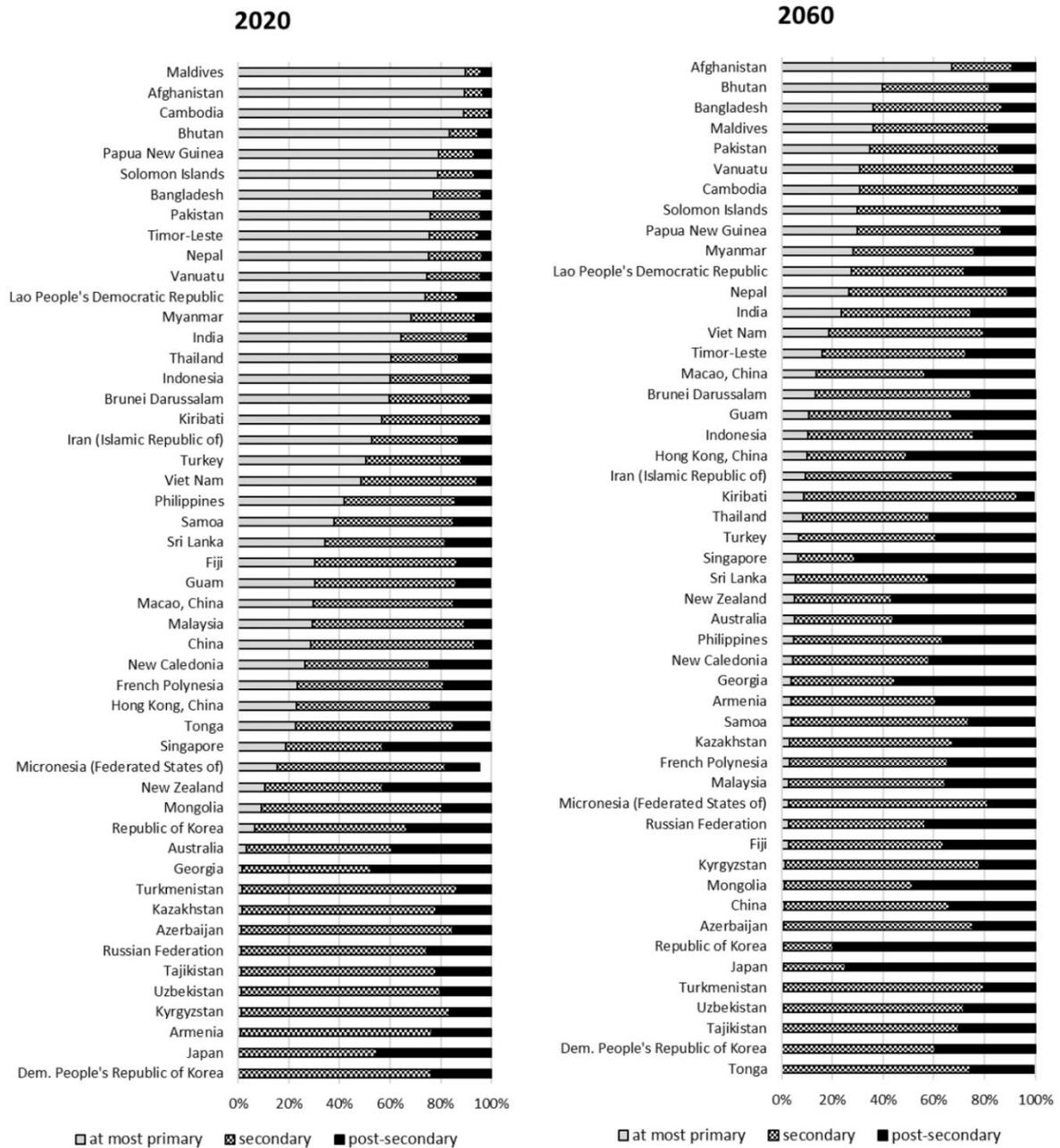
참고: 53개 회원국과 9개 준회원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은 제외

표 4. 2015/2020년 합계 출산율(TFR), 남녀 기대수명, 아태지역 국가의 15-64세 및 65세 이상 인구 점유율(백분율), 2020년, 2040년 및 2060년

Country	TFR	LEx Male	LEx Female	Share pop. 15-64			Share pop. 65+		
				2020	2040	2060	2020	2040	2060
Afghanistan	4.6	62.9	65.8	56	65	69	3	4	8
Armenia	1.8	71.1	78.3	67	66	58	12	18	27
Australia	1.8	81.2	85.2	64	62	59	16	21	24
Azerbaijan	2.1	70.3	75.3	70	68	62	7	15	22
Bangladesh	2.1	70.5	74.1	68	70	64	5	11	21
Bhutan	2.0	71.0	71.6	69	72	63	6	11	23
Brunei Darussalam	1.8	74.5	76.9	72	68	60	6	16	26
Cambodia	2.5	67.2	71.5	64	67	65	5	8	15
China	1.7	74.5	79.0	70	62	56	12	24	30
Hong Kong, China	1.3	81.8	87.5	69	56	50	18	31	36
Macao, China	1.2	81.1	87.0	74	63	53	12	25	33
Dem. People's Republic of Korea	1.9	68.3	75.4	71	64	62	9	18	22
Fiji	2.8	65.6	69.1	65	66	66	6	9	12
French Polynesia	2.0	75.3	79.7	69	64	60	9	19	25
Georgia	2.1	69.1	77.9	65	63	59	15	20	24
Guam	2.3	76.5	83.3	66	62	61	11	18	22
India	2.2	68.1	70.5	67	68	66	7	11	17
Indonesia	2.3	69.3	73.6	68	66	64	6	13	18
Iran (Islamic Republic of)	2.2	75.3	77.6	69	68	58	7	14	25
Japan	1.4	81.3	87.5	59	54	50	28	35	38
Kazakhstan	2.8	68.8	77.4	63	65	62	8	13	17
Kiribati	3.6	63.9	72.0	60	63	63	4	7	11
Kyrgyzstan	3.0	67.2	75.4	63	65	64	5	9	13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7	65.7	69.2	64	69	67	4	8	14
Malaysia	2.0	74.0	78.1	69	68	62	7	13	22
Maldives	1.9	77.1	80.4	77	74	56	4	12	32
Micronesia (Fed. States of)	3.1	66.1	69.4	64	66	67	4	7	11
Mongolia	2.9	65.5	73.8	65	66	63	4	10	15
Myanmar	2.2	63.7	69.8	68	68	67	6	11	15
Nepal	1.9	68.8	71.7	65	71	67	6	10	19
New Caledonia	2.0	74.7	80.2	68	64	62	10	18	22
New Zealand	1.9	80.3	83.8	64	60	59	16	23	26
Pakistan	3.6	66.1	68.0	61	66	67	4	6	10
Papua New Guinea	3.6	62.9	65.5	61	64	66	4	5	8
Philippines	2.6	67.1	75.3	64	67	66	6	10	15
Republic of Korea	1.1	79.6	85.7	72	57	49	16	33	41
Russian Federation	1.8	66.8	77.5	66	64	58	16	21	25
Samoa	3.9	71.1	75.2	58	61	63	5	9	10
Singapore	1.2	81.3	85.5	74	60	53	13	29	36
Solomon Islands	4.4	71.1	74.6	56	60	62	4	6	8
Sri Lanka	2.2	73.3	80.1	65	62	59	11	19	24
Tajikistan	3.6	68.6	73.1	60	62	63	3	6	10
Thailand	1.5	73.1	80.6	70	61	56	13	26	31
Timor-Leste	4.1	67.2	71.3	59	64	67	4	6	9
Tonga	3.6	68.8	72.7	59	62	65	6	8	10
Turkey	2.1	74.3	80.2	67	65	60	9	16	24
Turkmenistan	2.8	64.5	71.5	64	67	65	5	9	13
Uzbekistan	2.4	69.4	73.6	66	68	65	5	10	16
Vanuatu	3.8	68.8	71.9	58	63	64	4	5	8
Viet Nam	2.1	71.2	79.4	69	66	58	8	16	25

출처: UN DESA 2019b; 아태지역 국가 중 데이터 가용성으로 인해 미국령 사모아, 쿡 제도, 마셜 제도, 나우루, 니우에,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및 투발루 제외

그림 9. 2020년 및 2060년 아태지역 국가의 50-64세 인구의 교육 구성(초등 교육 비율 기준)



출처: Wittgenstein Centre for Demography and Global Human Capital, 2018, GET (Global Education Trend) education scenario; 아태지역 국가 중 데이터 가용성으로 인해 미국령 사모아, 쿡 제도, 마셜 제도, Науру, 니우에,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및 투발루 제외(author's own calculations.)

표 5.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노동력 참여율(60-64세), 1990년, 2000년, 2019년

Country	Women			Men		
	1990	2000	2019	1990	2000	2019
Afghanistan	7.4	7.5	8.8	56.8	57.2	56.6
Armenia	45.4	45.4	42.0	65.6	65.6	62.9
Asia and the Pacific	28.7	34.0	34.4	70.6	67.5	64.4
Asia and the Pacific: High income	36.0	37.1	52.2	67.9	67.1	75.8
Asia and the Pacific: Low income	51.9	48.8	45.5	73.7	76.0	74.2
Asia and the Pacific: Lower-middle income	25.0	25.5	20.9	78.6	74.0	67.0
Asia and the Pacific: Upper-middle income	29.0	39.2	40.9	65.6	62.9	60.5
Australia	16.0	21.5	52.0	50.7	46.6	65.4
Azerbaijan	21.4	20.5	28.1	70.1	83.3	34.9
Bangladesh	20.5	21.6	19.5	85.6	83.9	77.7
Bhutan	52.3	54.3	65.0	76.5	75.7	75.4
Brunei Darussalam	13.2	11.4	21.2	71.1	48.2	31.1
Cambodia	58.9	57.5	71.0	78.7	80.3	79.5
China	27.3	38.9	41.2	63.2	60.4	58.8
Fiji	33.5	30.5	24.4	70.8	69.2	61.9
French Polynesia	14.1	13.6	15.8	25.6	23.9	25.2
Georgia	57.8	54.8	59.0	79.1	78.8	77.0
Guam	33.9	34.0	33.9	65.1	65.3	65.5
India	22.6	22.5	14.6	79.3	73.2	66.1
Indonesia	43.1	48.9	50.9	78.9	78.9	77.5
Iran, Islamic Republic of	3.9	6.3	6.8	82.1	68.7	41.7
Japan	39.5	39.5	59.9	72.9	72.6	84.4
Kazakhstan	29.5	24.6	19.8	52.4	50.0	54.6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63.4	60.1	60.4	81.3	82.3	82.2
Korea, Republic of	43.5	46.1	52.1	67.2	63.6	75.5
Kyrgyzstan	25.7	28.3	24.3	43.3	56.5	63.1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42.4	48.2	59.7	74.4	74.5	75.0
Malaysia	18.9	19.7	22.7	54.9	54.6	49.3
Maldives	22.1	40.6	31.6	75.0	75.4	63.3
Mongolia	21.2	20.8	22.2	37.0	37.3	32.2
Myanmar	14.0	17.6	21.0	68.5	65.5	59.7
Nepal	69.2	70.0	75.4	90.0	89.9	88.6
New Caledonia	24.5	24.5	24.4	35.3	35.2	35.5
New Zealand	16.7	33.5	67.0	34.7	59.7	80.1
Pakistan	10.6	16.4	16.6	78.5	76.5	68.7
Papua New Guinea	64.5	66.1	43.2	73.3	72.6	39.1
Philippines	48.2	48.6	46.0	76.5	76.4	67.6
Russian Federation	22.2	20.9	27.5	41.8	36.1	41.1
Samoa	17.4	18.0	19.1	45.6	45.2	44.5
Singapore	12.3	19.0	49.5	47.1	53.0	75.7
Solomon Islands	81.6	81.4	82.3	91.9	92.0	91.8
Sri Lanka	23.4	20.3	27.2	69.6	61.3	68.1
Tajikistan	18.0	18.0	18.4	55.9	55.9	50.4
Thailand	46.5	48.0	45.0	74.3	73.9	66.4
Timor-Leste	71.3	72.1	74.0	88.9	88.7	88.2
Tonga	30.9	46.5	34.8	83.2	75.3	55.1
Turkey	22.2	18.6	15.7	54.8	47.8	44.8
Turkmenistan	21.3	22.9	19.7	52.9	54.7	51.1
Uzbekistan	24.1	25.0	21.4	55.8	56.4	53.0
Vanuatu	60.0	60.8	60.9	81.6	81.4	81.4
Viet Nam	47.8	52.6	52.9	67.6	65.9	63.2

출처: ILOSTAT, 2021. ILO modelled estimates, Nov. 2020 (per cent) – Annual, for available countries.

표 6. 아태지역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성별 노동력 참여율, 1990, 2000, 2019년

Country	Women			Men		
	1990	2000	2019	1990	2000	2019
Afghanistan	4.8	4.9	3.1	35.4	36.3	29.7
Armenia	1.3	1.3	1.1	4.3	4.3	3.5
Asia and the Pacific	11.3	15.6	14.5	41.1	39.6	32.8
Asia and the Pacific: High income	14.1	13.5	17.8	31.5	30.0	32.9
Asia and the Pacific: Low income	26.9	24.4	22.9	47.4	47.7	45.4
Asia and the Pacific: Lower-middle income	12.2	12.6	9.6	52.2	47.8	36.2
Asia and the Pacific: Upper-middle income	9.6	17.8	16.5	35.9	36.4	30.4
Australia	2.4	3.0	11.0	9.2	9.9	19.0
Azerbaijan	6.8	12.4	4.0	12.8	22.6	9.5
Bangladesh	13.9	13.9	8.8	68.4	62.3	46.0
Bhutan	36.1	35.9	26.6	62.0	57.9	43.7
Brunei Darussalam	4.3	2.3	10.1	32.8	14.5	14.0
Cambodia	24.2	22.4	35.5	44.8	46.0	55.1
China	8.0	17.3	15.4	32.7	33.8	27.6
Fiji	22.7	19.3	13.6	51.7	50.7	41.1
French Polynesia	5.8	3.6	4.3	11.5	9.1	8.9
Georgia	44.2	42.7	33.3	60.2	60.2	47.7
Guam	11.4	11.7	11.8	36.2	35.1	34.3
India	10.4	10.3	6.5	52.8	47.1	34.5
Indonesia	24.6	29.4	31.7	56.8	59.0	57.7
Iran, Islamic Republic of	3.7	3.4	2.8	64.4	48.2	25.4
Japan	16.2	14.4	18.0	36.5	34.1	34.8
Kazakhstan	11.1	12.6	3.4	18.8	21.9	6.0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32.1	29.4	29.7	53.3	54.2	54.2
Korea, Republic of	18.4	22.7	27.8	39.3	40.6	45.0
Kyrgyzstan	7.1	12.8	7.9	15.7	26.6	16.6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9.3	20.2	22.0	46.9	43.8	37.1
Malaysia	10.5	11.2	12.0	44.3	42.5	39.9
Maldives	13.5	25.8	20.4	51.8	51.9	30.9
Mongolia	10.8	10.5	7.7	21.7	21.9	14.7
Myanmar	5.6	6.9	7.4	30.6	30.0	23.6
Nepal	40.9	40.2	37.7	68.1	66.9	57.4
New Caledonia	3.3	3.2	3.3	7.7	7.8	7.4
New Zealand	3.6	4.5	19.4	10.3	11.8	29.6
Pakistan	7.4	10.5	8.3	51.7	51.7	40.4
Papua New Guinea	46.9	48.5	21.6	60.0	59.4	23.6
Philippines	27.2	28.9	25.6	59.3	55.7	42.5
Russian Federation	4.7	5.1	5.2	8.9	10.3	8.5
Samoa	6.4	6.7	7.2	20.0	19.7	19.1
Singapore	3.3	5.0	19.6	18.2	21.2	38.5
Solomon Islands	53.2	52.9	54.2	67.8	67.9	67.6
Sri Lanka	8.3	5.2	11.7	38.7	30.4	36.7
Tajikistan	6.2	6.2	2.4	18.7	18.7	7.9
Thailand	12.5	13.3	17.3	35.4	33.9	33.4
Timor-Leste	56.2	57.1	59.2	72.4	72.1	71.6
Tonga	15.4	22.0	13.9	57.1	53.8	33.8
Turkey	9.3	11.3	5.6	30.9	32.5	20.1
Turkmenistan	7.4	7.9	6.8	17.3	17.8	16.7
Uzbekistan	8.4	8.7	7.4	18.2	18.4	17.3
Vanuatu	48.5	49.2	49.3	69.6	69.3	69.3
Viet Nam	17.6	20.2	20.8	36.3	35.1	31.4

출처: ILOSTAT, 2021. ILO modelled estimates, Nov. 2020 (per cent) – Annual, for available countries. 관측치는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 이는 국가 비교나 순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준과 추세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Abay, K. A., Tafere, K., and Woldemichael, A. (2020). Winners and Losers from COVID-19. Global Evidence from Google Search (WB Development Research Group, Development Economic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9268). World Bank.
- ABDI, OECD, ILO. (2021). Labor migration in Asia. Impacts of the COVID-19 crisis and the post-pandemic future. Tokyo, Paris, Bangkok.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784823.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784823.pdf)
- AfDB, ADB, EBRD, IDB (2018). The Future of Work: Regional Perspectives. Washington, DC.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481901/future-work-regional-perspectives.pdf>
- ASEAN and UN WOMEN (2021). ASEAN Gender Outlook: Achieving the SDGs for all and leaving no woman or girl behind. [https://data.unwomen.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ASEAN/ASEAN%20Gender%20Outlook\\_final.pdf](https://data.unwomen.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ASEAN/ASEAN%20Gender%20Outlook_final.pdf)
- The Asia Foundation (2021). Revisiting the Pandemic: Surveys on the Impact of COVID-19 on Small Businesses and Workers: Thailand Report. Three Rounds of Surveys (May 2020 - January 2021). [https://asiafoundation.org/wp-content/uploads/2021/06/Thailand\\_Revisiting-the-Pandemic\\_Surveys-on-the-Impact-of-Covid-19-on-Small-Businesses-and-Workers.pdf](https://asiafoundation.org/wp-content/uploads/2021/06/Thailand_Revisiting-the-Pandemic_Surveys-on-the-Impact-of-Covid-19-on-Small-Businesses-and-Workers.pdf)
- Backhaus, A., and Barslund, M. (2021). The effect of grandchildren on grandparental labor supply: Evidence from Europe. *European Economic Review*, 137, 103817. <https://doi.org/10.1016/j.eurocorev.2021.103817>
- Cheng, Y. A., and Loichinger, E. (2017). The Future Labor Force of an Aging Taiwan: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Female Labor Suppl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6(3), 441–466. <https://doi.org/10.1007/s11113-016-9423-z>
- DOP Thailand, and CPS (2018). Research Project on Care for Older Persons in ASEAN+3.: The Role of Families and Local and National Support Systems. Bangkok. Department of Older Persons,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College of Populatio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 Esposto, A. (2016). Skills needs in emerging green jobs in the building and tourism industries in Thailand. Bangkok. ILO. [https://labordoc.ilo.org/discovery/delivery/41ILO\\_INST:41ILO\\_V2/1245819810002676?lang=en&viewerServiceCode=AlmaViewer](https://labordoc.ilo.org/discovery/delivery/41ILO_INST:41ILO_V2/1245819810002676?lang=en&viewerServiceCode=AlmaViewer)
- Fiedler, A. J. (2020). Women and the Future of Care Work in Asia. Singapore. Friedrich Ebert Stiftung. <http://library.fes.de/GGTSPU-57bdb428525018f4-7080-305867-BgkWdR0TXsbZRQXk-LOD/pdf-files/bueros/singapur/16156.pdf>
- Gammarano, R. (2018). What about seniors? A quick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older persons in the labour market (Spotlight on Work Statistics No. 1 - May 2018). ILO STAT. [https://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stat/documents/publication/wcms\\_629567.pdf](https://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stat/documents/publication/wcms_629567.pdf)

- ILO (2004). Lifelong learning in Asia and the Pacific. Background report for the Tripartite Regional Meeting, Bangkok, 8-10 December 2003.
- ILO (2014). Green jobs mapping study in Malaysia. Bangkok.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239640.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239640.pdf)
- ILO (2015). Asia-Pacific Labour Market Update. Bangkok.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410962.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410962.pdf)
- ILO (2017). What future for decent work in Europe and Central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Geneva.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urope/---ro-geneva/documents/meetingdocument/wcms\\_567104.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urope/---ro-geneva/documents/meetingdocument/wcms_567104.pdf)
- ILO (2018a). Asia-Pacific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18: Advancing decent 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angkok. ILO,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Analysis Unit.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sro-bangkok/documents/publication>
- ILO (2018b). Care work and care jobs for the future of decent work. Geneva.  
[https://www.ilo.org/global/publications/books/WCMS\\_633135/lang--en/index.htm](https://www.ilo.org/global/publications/books/WCMS_633135/lang--en/index.htm)
- ILO (2018c). More than 68 per cent of the employed population in Asia-Pacific are in the informal economy. [https://www.ilo.org/asia/media-centre/news/WCMS\\_627585/lang--en/index.htm](https://www.ilo.org/asia/media-centre/news/WCMS_627585/lang--en/index.htm)
- ILO (2019a). The future of work and migration: Thematic background paper for the 12<sup>th</sup> ASEAN Forum on Migrant Labour (AFML). Bangkok.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s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733923.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s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733923.pdf)
- ILO (2019b). Green Jobs and a Just Transition for Climate Action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s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734887.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s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734887.pdf)
- ILO (2019c). ILO Centenary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Work.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711674.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711674.pdf)
- ILO (2019d).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National policy responses in ASEAN +6. Bangkok.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s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717736.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s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717736.pdf)
- ILO (2019e). Work for a brighter future –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cabinet/documents/publication/wcms\\_662410.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cabinet/documents/publication/wcms_662410.pdf)
- ILO (2020a). Asia–Pacific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0: Navigating the crisis towards a human-centred future of work.
- ILO (2020b). ILOSTAT data explorer.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by sex and age—ILO modelled estimates, Nov. 2020 (%) -- Annual.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6/?lang=en&segment=indicator&id=EAP\\_2EAP](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6/?lang=en&segment=indicator&id=EAP_2EAP)

[\\_SEX\\_AGE\\_NB\\_A](#)

- ILO (2021a).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Country policy responses. Database.  
<https://www.ilo.org/global/topics/coronavirus/regional-country/country-responses/lang--en/index.htm#UN>
- ILO (2021b).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1: The rol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in transforming the world of work. Geneva. [https://www.ilo.org/wcmst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771749.pdf](https://www.ilo.org/wcmst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771749.pdf)
- ILO (2021c).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21. Geneva.
- ILO (2021d).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20–22: Social protection at the crossroads – in pursuit of a better future. Geneva.
- IMF (2021).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Loichinger, E. (2015). Labor force projections up to 2053 for 26 EU countries, by age, sex, and highest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Demographic Research*, 32(15), 443–486.  
<https://doi.org/10.4054/DemRes.2015.32.15>
- Loichinger, E., and Cheng, Y. A. (2018). Feminising the workforce in ageing East Asia? The potential of skilled female labour in four advanced economies.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35(2), 187–215. <https://doi.org/10.1007/s12546-018-9203-1>
- Loichinger, E., and Pothisiri, W. (2018). Health prospects of older persons in Thailand: the role of education. *Asian Population Studies*, 14(3), 310–329.  
<https://doi.org/10.1080/17441730.2018.1532140>
- Lutz, W., Butz, W. P., and K.C. Samir (Eds.). (2014). *World Population and Human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 Manzoor, A. (2009). The state and development of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https://uil.unesco.org/adult-education/confintea/state-and-development-adult-learning-and-education-asia-and-pacific>
- OECD (2019). *Working Better with Age.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Paris.  
<https://doi.org/10.1787/c4d4f66a-en>
- Ogawa, N., Mansor, N., Lee, S.-H., Abrigo, M. R.M., & Aris, T. (2021). Population Aging and the Three Demographic Dividends in Asia. *Asian Development Review*, 38(1), 32–36.  
[https://doi.org/10.1162/adev\\_a\\_00157](https://doi.org/10.1162/adev_a_00157)
- Paweenawat, S. W., and Liao, L. (2021). Labor Supply of Older Workers in Thailand: The Role of Co-residence, Health, and Pensions (ADB Working Paper 1224).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Sakamoto, A., and Sung, J. (2018). Introduction. Building an inclusive future through skills development: An agenda for Asia and the Pacific. In A. Sakamoto and J. Sung (Eds.), *Skills and the Future of Work: Strategies for inclusive growth in Asia and the Pacific* (pp. 1–40). ILO.
- Serrao, S. (2015). Population ageing and its gender dimensions: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women: A synthesis of literature with evidence from the Asia-Pacific region.  
<https://hr.un.org/sites/hr.un.org/files/Population%20ageing%20and%20its%20gender%20>

[dimensions\\_0.pdf](#)

- UN (2002). Political Declaration and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Madrid, Spain. 8-12 April, 2002. New York.
- UN (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older persons. New York.  
<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wp-content/uploads/sites/24/2020/05/COVID-Older-persons.pdf>
- UN (2021). Our Common Agenda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New York.  
[https://www.un.org/en/content/common-agenda-report/assets/pdf/Common\\_Agenda\\_Report\\_English.pdf](https://www.un.org/en/content/common-agenda-report/assets/pdf/Common_Agenda_Report_English.pdf)
- UNDP (2016). Asia-Pacific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 Shaping the Future: How changing demographics can power human development. UNDP.
- UNESCO (2021). Recovering lost learning: What can be done quickly and at scale? (UNESCO COVID- 19 Education Response. Education Sector issue notes, number 7.4).
- UNFPA (2017). Perspectives on Population Age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Where Do Selected Countries Stand 15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 UNICEF (2020). COVID-19 threatens to reverse education gains.  
<https://www.unicef.org/eap/stories/covid-19-threatens-reverse-education-gains>
- UN DESA. (2019a). International Migrant Stock Database. The 2019 revision.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data/estimates2/index.a.sp>
- UN DESA (2019b).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New York.
- UN ESCAP (2017a). Ageing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An overview. UN ESCAP, Social Development Division.
- UN ESCAP (2017b). Population Ageing in East and North-East Asia and Its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Brief, Issue No. V, 2017, East and North-East Asia Office). Bangkok.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Policy%20Brief%20V%20-%20Aging%20and%20SDGs.pdf>
- UN ESCAP (2018).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Asia and the Pacific. Decent Work. Bangkok.
- UN ESCAP (2020a). Asia-Pacific Migration Report 2020: Assessing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Bangkok.
- UN ESCAP (2020b). UN ESCAP population data sheet.: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0.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d8files/knowledge-products/SDD-PS-data-sheet-2020-v6-1.pdf>
- UN ESCAP (2020c). Older Women and Men as Providers and Recipients of Unpaid Care Work in the Asia-Pacific Region. Bangkok.
- UN ESCAP (2021a). Addressing Unpaid Care Work in ASEAN. Bangkok.
- UN ESCAP (2021b).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1.
- UN ESCAP (2021c). The demographic dividend: An economic development opportunity.  
<https://www.population-trends-asiapacific.org/demographic-dividend>

- UN ESCAP (2021d).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reen Growth. <https://www.unescap.org/our-work/environment-development/green-growth>
- UN ESCAP (2021e). Resilience in a Riskier World. Managing systematic risks from biological and other natural hazards. Asia-Pacific Disaster Report 2021. Bangkok.
- UN ESCAP (2021f).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Address the Health-care Needs of Older Persons Managing Chronic Disease:: A Guidebook and Good Practices from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 UN ESCAP (2021g). Webinar on 'Intergenerational action on climate crisis: Unleashing the power of older people'. Activity Report. 4 February 2021. Bangkok.
- UN ESCAP and ILO (2021). The Protection We Want: Social Outlook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https://unescap.org/sites/default/d8files/knowledge-products/Social\\_Outlook\\_Report\\_v10.pdf](https://unescap.org/sites/default/d8files/knowledge-products/Social_Outlook_Report_v10.pdf)
- UN ESCAP, Environ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2020). Are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itiating a "Green Recovery"? What more can be don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olicy Brief, 2020/1). Bangkok. UNESCAP.
- WHO (2020). Decade of Healthy Ageing 2020–2030. [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decade-of-healthy-ageing/final-decade-proposal/decade-proposal-final-apr2020-en.pdf?sfvrsn=b4b75ebc\\_25&download=true](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decade-of-healthy-ageing/final-decade-proposal/decade-proposal-final-apr2020-en.pdf?sfvrsn=b4b75ebc_25&download=true)
- Wittgenstein Centre for Demography and Global Human Capital (2018). Wittgenstein Centre Data Explorer Version 2.0 (Beta). Available at: <http://www.wittgensteincentre.org/dataexplorer>.
- UN Women (2021). Women and girls left behind. Glaring gaps in pandemic responses. UN Women.
- World Economic Forum. (2020).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 World Bank (2020). Beaten or Broken? Informality and COVID-19 (South Asia Economic Focus | Fall 2020).